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초등학교에서 학급 의사소통 방식이  
학생의 규칙 신뢰감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Class Communication Methods  
on Students' Rule Trust  
in Elementary Schools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일반사회전공  
권한님



# 초등학교에서 학급 의사소통 방식이 학생의 규칙 신뢰감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박 성 혁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일반사회전공  
권 한 님

권한님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6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 국문초록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률과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제도에 대한 믿음과 지지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국은 법률과 제도에 대한 공적 신뢰가 매우 낮은 사회이며 이러한 불신의 풍조는 학교 현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학교기관과 공교육의 무의미함,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의심, 서로를 믿지 못하는 학생들이 신뢰가 무너진 모습의 대표적인 예이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에게 체감되는 법률 및 제도는 학교의 공식적 규범인 학교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유지되기 위해서 제도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규칙이 실효성을 갖고 공동체 화합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규칙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감이 선행되어야 한다. 규칙에 대한 신뢰감은 자발적인 규칙 준수 행동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협력적 태도를 증진시켜 학교 공동체 유지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신뢰는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과 상호 작용하며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형성하게 된다. 특히 초등학생에게 적용되는 공식적 생활규범인 학급규칙은 학급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성립되고 시행된다. 이 과정에서 학급 구성원들은 끊임없는 의사소통을 경험하게 된다. 학생들은 학급 의사소통의 방식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그 결과물인 학급규칙에 대해 신뢰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뢰의 기제로서 소통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먼저 규칙 신뢰감을 형성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밝혀내고자 의사소통을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 및 관련 이론을 검토한 결과 인지적 측면에서 의사소통 합리성이 필요하며, 정서적 측면에서 의사소통 개방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민주적 의사소통 방식이 실제로 학생들의 규칙 신뢰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

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주가설] 학생이 지각한 학급 의사소통 방식은 학생의 규칙 신뢰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위가설 1] 학생이 지각한 의사소통 방식이 민주적일수록 규칙 공정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1-1] 의사소통 방식이 합리적일수록 학급규칙 공정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1-2] 의사소통 방식이 개방적일수록 학급규칙 공정성이 높을 것이다.

[하위가설 2] 학생이 지각한 의사소통 방식이 민주적일수록 규칙 유용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2-1] 의사소통 방식이 합리적일수록 학급규칙 유용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2-2] 의사소통 방식이 개방적일수록 학급규칙 유용성이 높을 것이다.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서울, 경기도 소재하는 4개 학교에서 총 13개 학급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설문지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케이스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측정된 총 260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연구 가설의 검증을 위해 의사소통 개방성과 합리성, 규칙 형성 참여 여부, 규칙 시행 참여 여부, 연령, 성별을 독립 변인으로, 규칙 신뢰감을 종속 변인으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 결과 학생이 지각한 학급 의사소통 방식은 규칙 신뢰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주 가설을 채택하였다. 또한 의사소통의 합리성과 개방성 모두 규칙의 공정성과 유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모든 하위가설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다음의 교육적 의미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학급 의사소통 방식이 규칙 신뢰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규범교육의 목표인 규칙 신뢰감 함양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학생이 일상적으로 교사와 또래 학생들과 경험하는 의사소통이 규칙 신뢰감 형성에 강력한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신뢰라는 개념이 다차원적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됨을 고려할 때 규칙 신뢰감은 생활 전반에 걸친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함양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규칙 신뢰감 연구에 대한 대안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동안 학교규칙에 대한 연구는 교사와 학생을 분리하여 교사는 규칙의 집행자로 학생은 규칙을 적용 받는 존재로 전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교실을 교사와 학생이 함께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공론장으로 보았다. 이는 규칙 운영에 있어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동등하게 보았다는 점에서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의 다른 시각을 제공한다.

셋째, 본 연구는 학급 구성원 간 의사소통이 어떠한 형태로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학급 의사소통 방식의 하위 요소로 분석한 의사소통의 합리성과 개방성은 규칙 신뢰감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어떠한 의사소통 방식이 학생의 규칙 신뢰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넷째, 본 연구는 규칙 신뢰감 함양을 목표로 하는 규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생의 규칙 신뢰감은 중간값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M=4.15). 학교 규범 교육은 단순히 규칙 준수의 차원에서 벗어나 규칙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민주적인 의사소통의 조성을 통해 가능한 일일 것이다.

민주적 의사소통을 통해 형성된 규칙 신뢰감은 학급 공동체 내에서 상호 간 협력을 증진시키고 자발적으로 규칙을 준수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학교에서의 경험은 학생들이 사회 규범을 존중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는 민주 시민으로 나아가도록 할 것이다.



주요어 : 시민교육, 법교육, 학급규칙, 의사소통, 규칙 신뢰감, 신뢰  
학 번 : 2017-20613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2. 연구 문제 .....	4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5
II. 이론적 배경 .....	8
1. 사회과 목표로서 규칙 신뢰감 .....	8
1) 신뢰의 개념과 유형 .....	8
(1) 신뢰의 개념 .....	8
(2) 신뢰의 유형 .....	11
2) 규칙 신뢰감 .....	13
(1) 규범과 학급규칙 .....	13
(2) 규칙 신뢰감의 개념과 내용요소 .....	17
(3) 사회과교육과 규칙 신뢰감 .....	19
2. 민주적 의사소통 .....	21
1) 의사소통의 개념과 특성 .....	21
(1) 의사소통의 합리성 .....	22
(2) 의사소통의 개방성 .....	28
2) 민주적 의사소통과 시민교육 .....	31
(1) 의사소통의 교육적 의미 .....	31
(2) 초등학교 교실 내의 의사소통 .....	33
(3) 민주적 의사소통의 시민교육적 의의 .....	37
3. 의사소통과 규칙 신뢰감 .....	39
1) 소통을 통한 신뢰 구축 .....	39
2) 학급 의사소통 방식과 규칙 신뢰감 .....	40

4. 선행 연구 검토 .....	42
1) 의사소통 관련 선행연구 .....	42
2) 규칙 신뢰감 관련 선행연구 .....	43
<b>III. 연구 설계 .....</b>	<b>46</b>
1. 연구 가설 .....	46
2. 연구 대상 .....	47
3. 연구 변인 .....	49
1) 종속 변인 .....	50
2) 독립 변인 .....	50
3) 통제 변인 .....	51
4. 측정 도구 .....	52
5. 분석 방법 .....	55
<b>IV. 결과의 분석과 논의 .....</b>	<b>57</b>
1. 학급 의사소통 방식과 규칙 신뢰감의 특성 .....	57
1) 초등학생이 지각한 학급 의사소통 방식 .....	57
2) 초등학생의 규칙 신뢰감 .....	58
2. 학급 의사소통 방식이 규칙 신뢰감에 미치는 영향 .....	59
1) 학급 의사소통 방식이 규칙 신뢰감에 미치는 영향 .....	60
2) 학급 의사소통 방식이 규칙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	63
3) 학급 의사소통 방식이 규칙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 .....	66
<b>V. 결론 및 제언 .....</b>	<b>70</b>
1. 요약 및 결론 .....	70
2. 제언 .....	75

참고문헌	78
부록	85
Abstract	90

## 표 목 차

<표 1> 인지적 정서적 측면의 신뢰 유형 .....	10
<표 2> 교실 규범의 유형 .....	15
<표 3> 신뢰의 내용과 대상에 따른 규칙 신뢰감의 분류 ..	18
<표 4> Habermas의 행위 유형 .....	23
<표 5> 연구 대상의 특성 .....	49
<표 6> 규칙 신뢰감의 설문 구성 .....	53
<표 7> 학급 의사소통 방식의 설문 구성 .....	54
<표 8> 학급 의사소통 방식의 특성 .....	58
<표 9> 규칙 신뢰감의 특성 .....	59
<표 10> 연구 독립 변인 간의 상관관계 .....	60
<표 11> 규칙 신뢰감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61
<표 12> 규칙 공정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64
<표 13> 규칙 유용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67

## 그 립 목 차

[그림 1] 의사소통의 기본 모형 .....	33
[그림 2] 교사와 학생의 대화관계 1 .....	34
[그림 3] 교사와 학생의 대화관계 2 .....	34
[그림 4] 교실 내 대화관계 .....	36
[그림 5] 교실 내 의사소통의 유형 .....	37
[그림 6] 분석 모형 .....	50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현재 우리는 사회 전반의 불신풍조와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불신의 구도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인간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도 나타난다.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교육을 실천해야 할 학교에서도 이러한 불신의 모습이 나타난다. 학교기관과 공교육의 무의미함, 교사 전문성에 대한 의심, 서로를 믿지 못하는 학생들 모두 사회적 신뢰가 부족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교육 주체들에 대한 불신의 문제는 학교 교육의 무력화를 야기한다.

신뢰는 개인의 상호 호혜적인 공동체적 질서와 의식을 고취시켜 사회적 효용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다. 또한 신뢰는 민주 사회에서 참여의 정도와 방식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유지 및 발전에 근간이 된다.

과거에는 작은 공동체 내에서 감시와 처벌이라는 두려움을 통해 제도가 유지되었다면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시민들의 제도에 대한 믿음과 지지가 그 실체를 형성한다. 또한 개인들 간의 네트워크가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서는 공식적인 제도가 대인 간 신뢰 형성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 사회 규범을 공식적으로 수립한 법과 제도에 대한 높은 신뢰는 행위자에 대한 신뢰를 높여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은 행위자들에 대한 신뢰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김용학, 2004: 141-144).

그러나 실제로 한국은 공적 신뢰가 매우 낮은 사회이며 특히 정부 기관, 법 제도에 관한 신뢰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2017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중앙정부, 법원, 국회 순으로 낮았으며 이는 OECD 36개 국가 중 33위에 해당하였다.

학생들이 속해있는 사회인 학교공동체도 예외가 아니다. 학생들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학교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학생들에게 체감되는 ‘법’은 헌법과 법률보다는 학교규칙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규칙이 존재함에도 잘 지켜지지 않거나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장에서 매년 교사들은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최근 대부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생활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고, 초등학교에서는 학급별로 학기 초에 학급규칙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규칙이 실효성을 갖고 공동체 화합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규칙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감이 선행되어야 한다. 감시와 처벌을 통해 규칙 준수 행동을 강제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의 관계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처벌의 위협이 없으면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규칙에 대한 신뢰감은 자발적인 규칙 준수 행동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협력적 태도를 증진시켜 학급 공동체 유지에 기여한다.

신뢰는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며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신뢰는 교육적인 접근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형성되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규칙 신뢰감은 법 신뢰감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규칙 신뢰감의 형성은 민주 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회과교육의 주요 과제이다. 규칙이 형성되고 시행되는 과정에 대해 신뢰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이러한 신뢰에 부응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만큼 직접적인 시민교육의 학습경험은 없을 것이다.

학교공동체는 공식적인 제도와 규범에 대한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규칙 형성 및 개정 과정에 참여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공정함을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제도가 시민들의 신뢰를 통해 실체화되고 작동하는 모습으로 확장될 수 있다. 학교 규범교육의 효과에 대한 이러한 믿음은 실증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전진현(2013)의 연구에서는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모형이 학생들의 교칙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아름(2009)은 학생자치법정이 학생들의 법태도와 참여 의식 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초등학생에게는 학교의 규칙인 교칙보다 1년 동안 함께 생활하는 학급의 규칙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진다. 학교규칙의 형성과 시행이 학교 상·별점제나 학교규칙 제정 절차와 같이 제도적으로 정립되어 가고 있는 중·고등학교와 달리, 초등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학급 내 의사결정을 통해 1년 동안의 학급규칙이 형성된다. 그리고 학급 내에서 규칙을 형성하고 시행하는 과정은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초등학교 학급에서는 단순히 규칙과 관련된 주제가 아니더라도 학급 운영과 관련한 주제에 대해 일상적으로 대화와 토의가 이루어진다. 교사와 학생들은 자리 배치의 방법에서부터 학급의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또는 학급의 1년 목표를 무엇으로 삼으면 좋을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화한다. 이처럼 학급 구성원 모두에게 관련 있는 주제에 관해 대화하는 것을 학급의 공적 의사소통이라고 할 때, 규칙 또한 공적 의사소통의 결과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률과 규칙은 공적 합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공적 합의는 의사소통 절차를 필수적으로 동반하게 된다. 학급규칙 또한 마찬가지이다. 학급규칙이 학급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성립되기 위해서 학급 구성원들은 끊임없는 의사소통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학급규칙을 시행할 때에도 교사가 일방적으로 상·별점을 부과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통해 교사가 학생을 지도한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 간에도 학급규칙을 시행하고 유지하기 위한 대화를 하며 규칙 운영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규칙운영은 끊임없는 의사소통의 맥락 속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규칙 형성에 학생이 형식적으로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교사가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거나, 함께 토의하는 다른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학생들은 규칙이 제대로 된 합의의 결과물이 아니라고 여길 것이다. 또한 의사소통이 타당한 근거와 이유에 바탕을 두지 않고 인기 있는 학생이나 교사의 권위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면 학



생들은 함께 규칙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만들어진 학급규칙의 내용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학교규칙 또는 학급규칙에 대한 태도 관련 연구들은 규칙을 운영하는 방법과 교사의 역할에 주목하여 왔다. 이러한 접근은 규칙이 형성되고 시행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교사가 규칙의 집행자이고 학생은 규칙을 적용 받는 존재로 전제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하지만 규칙 운영은 끊임없는 의사소통의 맥락 속에서 일어나므로 교사가 학생에게 규칙을 적용한다는 일방적인 관점보다 규칙 운영과정에서 일어나는 학급 구성원 간 양방향적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초등학생이 긍정적인 규칙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운영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적 문제를 다루는 학급 의사소통 방식의 민주성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급규칙 운영과정에서 학생들의 의사소통 경험에 초점을 두어, 학급 내 민주적 의사소통 방식이 규칙 신뢰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학급의 의사소통 방식을 측정하여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규칙 신뢰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반영하여 구성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 문제 : 학급 의사소통 방식은 규칙 신뢰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러한 연구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의사소통 방식 및 규칙 신뢰감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II장에서 의사소통과 규칙 신뢰감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한다. 먼저 신뢰의 개념을 선행 연구를 통해 밝히고 규칙 신뢰감을 정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규칙 신뢰감의 중요성과 규칙 신뢰감 함양을 위해 사회과 법교육이 갖는 역할을 확인한다. 또한 의사소통의 개념과 특성, 학교교육에서의 의사소통의 의미를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의사소통 합리성이라는 인지적 차원의 의사소통만으로는 다차원적인 개념의 규칙 신뢰감을 함양할 수 없음을 밝히고, 의사소통 개방성이라는 정서적 차원이 결합된 의사소통 방식을 제안한다. 이에 더하여 의사소통과 규칙 신뢰감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규칙 신뢰감을 함양하기 위한 민주적인 의사소통 방식으로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제시한다. III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을 선정하고 연구 변인, 측정 도구 및 구체적인 분석 방법 등을 제시한다. IV장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학급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가 규칙 신뢰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고 가설을 검증한다. 그리고 초등학생이 지각한 학급 의사소통의 방식이 규칙 신뢰감의 하위 요인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한다.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여 논의한다. V장에서는 연구를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하며, 규칙 신뢰감을 함양하기 위한 법교육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민주적 의사소통 방식을 정의하고 시민교육적 의의를 검증하였다. 기존의 의사소통 관련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을 의사표현 및 전달의 일방향적 관점에서 정의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의 본질적 의미인 소통에 주목하여 대화 주체 간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민주적 의사소통 방식을 정의하였다. 듀이에 의하면 의사소통은 경험을 공유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교실 생활 속에서 경험한 민주적 의사소통 방식은 일상적 민주주의의 경험을 제공한다. 점에서 시민교육적 의의를 갖는다. 시민교육에서 민주주의는 정

치 원리가 아닌 생활 영역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떤 원리로 진행되는지 아는 것보다 추상적인 개념의 민주주의가 구체적인 생활 경험과 합치되는 경험을 할 때에 비로소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규칙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 학급 내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입증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규칙 신뢰감에 관한 논의는 주로 학생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 도입과 그 효과 측면에서 강조되어 왔고, 규칙을 운영하는 방법이나 교사의 태도에 주목해 왔다. 본 연구는 규칙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상황뿐만 아니라 학급의 공적 영역을 포괄한 공적 의사소통의 경험이 규칙 신뢰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학급 내 공적 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규범교육의 실천 방향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에서의 법교육은 생활규범교육의 성격이 강하다. 생활규범교육은 생활지도의 일환으로서 학교의 일상에서 규범과 관련한 다양한 맥락을 경험하고 그 경험에 대한 생각을 형성하며, 그런 개념화를 바탕으로 규범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박성혁·박선운, 2009).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민주적 의사소통 방식이 학교 현장에서 규범과 관련된 경험을 제공하는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첫째, 표본추출을 하는 데 있어 유의표집방법을 사용하였기에 모집단의 대표성에 한계를 가진다. 또한, 표집 대상의 지역 선정에 있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일부지역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였기에 서울, 경기 이외의 지역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평균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소득수준과 학업수준을 주요한 기준으로 두어 대상 학급을 선정하였다.

둘째, 학급 의사소통 방식을 학생의 지각을 중심으로 측정하였으므로 실제 학급 내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 방식과 다르게 지각되어 측정될 수

있다. 같은 학급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마다 의사소통 방식을 다르게 지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사소통의 민주성이라는 것은 소통의 당사자들이 지각한 주관적인 인지와 정서가 결합된 공통된 합의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응답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셋째, 의사소통 방식은 소통 과정 전반에 대한 질적 성격이 강한 개념이기 때문에 본 연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의사소통 방식을 학급 내에서 공적인 주제로 대화할 때 나타나는 학급 구성원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개념화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명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식의 범위는 공론 영역에서의 의사소통 방식이다. 하지만 규칙이라는 것이 공적 합의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의사소통 방식의 범위를 공론 영역으로 제한한 것은 두 요인 간의 인과 관계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제한이었다고 볼 수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사회과 목표로서 규칙 신뢰감

#### 1) 신뢰의 개념과 유형

신뢰 개념은 정치학, 경영학, 심리학, 사회학, 행정학 등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강조하고 연구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사회적 효용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사회적 자본의 일종으로서 특히 관심을 받고 있다. 신뢰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신뢰로 인해 관련 주체들의 협력적 행위를 촉진할 수 있고, 감시와 통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사회자본의 전형적인 예이다(황선영·곽한영, 2012: 1259). 학문 영역에 따라 신뢰의 개념은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지만 이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개념이 아니라 신뢰의 다양한 특성 중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었느냐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뢰에 대한 초기의 연구에서는 신뢰를 개인의 인성에 자리 잡고 있는 심리적 특성으로 본다. 이러한 특성적 접근에서는 신뢰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변화하지 않는 정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신뢰가 개인의 성향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 유지, 변화되는 것으로 보기 시작한 관계적 접근에서는 신뢰를 개인의 특성이나 조직의 역동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본다(이숙정, 2005: 17). 특성적 접근이 암묵적으로 신뢰의 단일 차원성을 전제하는 반면, 관계적 접근은 신뢰를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적 접근을 중심으로 신뢰의 개념을 살펴볼 것이다.

#### (1) 신뢰의 개념

신뢰는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라는 입장이 제기되면서 신뢰를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보는 관점이 등장하였다. 이들 주장은 두 가지 방향

으로 전개되었는데, 신뢰는 인지적 차원과 감정적 차원의 2차원으로 구성된 개념이라는 주장과 인지적, 정서적 차원 외에 행동적 차원까지 포함하는 3차원적 개념이라는 주장이다(원숙연, 2011: 67). 전자의 입장에서 신뢰는 신뢰대상에 대한 평가적 태도로 정의되지만, 후자의 입장에서 신뢰란 신뢰대상에 대한 평가만이 아닌 의존성에 대한 의식적 규제를 포함한다(Zand, 1972: 230). 행동적 차원을 포함한 후자의 입장에서 신뢰는 적극적인 행동의 의지가 포함되어 신뢰의 역동성이 강조된다. 신뢰의 인지·정서·행동적 차원에 따라 신뢰의 개념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신뢰의 인지적 차원이란 사회적 관계에서 신뢰대상에 대한 지식이나 신념을 근거로 어떤 대상은 믿고 어떤 대상은 믿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인지적 선택의 과정을 말한다(원숙연, 2011: 68). 신뢰대상에 대한 신뢰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과거의 경험, 지식 그리고 상호작용에 기초한 신뢰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Hardin, 1998).

특히 합리적 선택론자들은 신뢰의 인지적 차원을 강조하였는데 대표적인 학자로 Coleman이 있다. 그에 의하면 신뢰란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의도적 행위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는 위험이 타인의 행위에 의존해 있는 상황에서 어떤 행위자가 이 위험을 무릅쓰고 상대방을 신뢰함으로써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과 손실을 비교했을 때 예상되는 이익이 큰 경우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Coleman, 1990: 91, 99).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콜먼은 신뢰 행위를 ‘자기 이익 극대화를 지향하는 이기적 인간이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한 합리적 행위의 일종’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합리적 선택론의 관점에서 신뢰를 다루는 방식의 논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자기 이익에 기초한 합리적 행위 모델이 친사회적 행위, 정서적 행위, 그리고 습관적 혹은 전통적 행위를 설명하는 데에는 적합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Misztal, 1996: 88).

신뢰의 정서적 차원은 신뢰대상에 대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등의 느낌을 말한다. 인지적 차원과는 달리 대상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반드시 전제하지 않으며 일정 시점에 나타나는 자극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에 근

거할 경우도 있다(원숙연, 2011: 68). 정서적 차원으로 나타나는 신뢰는 관계의 당사자들 간에 형성되는 감정적, 정서적 유대감에 근거한다(Lewis and Weigert, 1985). 이는 배신을 당했을 때 강한 분노를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전통에 있는 Lewis와 Weigert은 합리적 선택론이 신뢰의 인지적인 측면이나 행동적인 측면보다 정서적 속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신뢰를 인지, 정서, 행동적 차원이 모두 융합된 다면적 차원의 현상으로 설명한다. 그들에 의하면 세 측면 각각의 혼합 비율은 다양할 수 있다. 특히 그들은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의 혼합 형태에 따라서 신뢰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표 1〉 인지적 정서적 측면의 신뢰 유형

		정서적 측면(정서성 emotionality)		
		높음	낮음	없음
인지적 측면 (합리성 rationality)	높음	이데올로기적 신뢰	인지적 신뢰	합리적 예측
	낮음	정서적 신뢰	통속적, 통상적 신뢰	가능한 기대
	없음	신념	운명	불확실성, 패닉 <sup>1)</sup>

출처: Lewis & Weigert(1985: 973)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인지적 측면이 우세한 신뢰가 인지적 신뢰이고 정서적 측면이 우세한 신뢰는 정서적 신뢰 유형이다. 이들에 의하면 비록 행동적 측면이 신뢰의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다른 요소들에 비해 행동적 요소가 우세한 경우는 진정한 신뢰가 아니다. Lewis와 Weigert은 정서적 신뢰는 1차 집단에 전형적인 반면에, 인지적 신뢰는 2차 집단에서 신뢰 관계가 형성될 때 보이는 특징이라고 지적하였다(Lewis and

1) 정서성과 합리성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상태는 신뢰가 아니다.

Weigert, 1985). 오늘날은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2차 집단  
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신뢰 관계 형성에 있어서 인지적 신뢰에 기초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뢰의 행동적 차원은 신뢰 대상이 성실하며 유능하게 행  
동할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를 근거로 위협을 무릅쓰고 신뢰대상의 행동  
에 대해 자신을 불확실한 상태로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는 정태  
적인 심리상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의 의지를 포함하는  
'행동적 실행' 이다(Lewis and Weigert, 1985: 971).

예를 들어 우리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 줄 때, 먼저 그 친구의 과거 행  
동에 비추어서 그의 미래 행동을 예측한다. 그 후에 돈을 갚을 것이라고  
믿고 결단을 하며 우리의 정서를 투여해서 그에게 돈을 빌려주는 배팅을  
감행한다. 이처럼 신뢰 행위에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차원이 항상 포  
합되어 있으며 이는 일정한 상호작용을 통해 존재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신뢰의 개념 정의는 신뢰를 특성적 관점에서 보는가  
또는 관계적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 그리고 학문적 배경에 따라 다르  
게 제시되고 있다. Rousseau et al(1998)은 다양한 정의들을 종합하여 신  
뢰의 개념을 정의하였고, 그 정의에서 우리는 신뢰의 속성을 찾을 수 있  
다. 그는 신뢰를 '상대방의 행동이나 의도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에 기  
초해서 취약성(vulnerability)을 수용하려는 심리적 상태' 라고 정의하였  
다. 여기서 '긍정적인 기대에 기초하여 취약성을 수용' 한다는 의미는  
신뢰 대상에 대해 수집한 정보로 미래의 결과를 나름대로 짐작은 하지만  
완벽하게 확신할 수는 없음을 뜻한다. 즉, 신뢰는 불확실성과 위협감수  
를 그 속성으로 한다. 불확실성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장래행동에  
배팅을 한다는 점이 신뢰의 핵심이라는 것이다(Sztompka, 1999).

## (2) 신뢰의 유형

관계적 접근에서 신뢰관계는 Hardin(1998: 12)이 제시한 바와 같이 'A  
는 B가 X할 것을(혹은 B의 X에 대해) 신뢰한다.' 라는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에서 A는 신뢰주체, B는 신뢰대상, X는 신뢰의 내용(혹은



신뢰근거 trustworthiness)이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신뢰를 신뢰의 내용(X)이나 신뢰대상(B)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해왔다(류태건, 2014: 375).

먼저 신뢰대상을 기준으로 보자면 신뢰는 크게 사람에 대한 신뢰와 제도에 대한 신뢰로 나눌 수 있다. 사람에 대한 신뢰는 신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개인 간의 사적인 형태의 신뢰이다. 규모가 작고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사회질서가 다른 개인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 유지되었다. 그런데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지자 개인은 점점 친밀한 개인과의 만남보다는 낯선 이들과의 네트워크를 광범위하게 형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회적 신뢰는 개인적 신뢰 유형에 의해서만 창출될 수는 없게 되었다. 이에 제도에 대한 신뢰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제도는 특정한 행위를 가능하게도 하고 동시에 제약도 하기 때문에(Giddens, 1984), 제도에 대한 신뢰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예측하고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 준다. 동시에 제도는 기대된 행동을 일탈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도 가하게 된다(김자영, 2008: 17). 그러므로 제도에 대한 신뢰는 현대 사회에서 한 공동체가 발전하고 유지되는 데 필수적이다.

이처럼 신뢰는 신뢰대상에 따라 사람에 대한 신뢰인 사적신뢰와 제도에 대한 신뢰인 공적신뢰로 나눌 수 있다. 반면, 신뢰를 신뢰의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한 경우도 존재한다.

신뢰의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한 신뢰의 유형은 Barber(1983)의 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Barber(1983)는 신뢰의 속성을 기대(expectation)로 보고 신뢰를 자연의 질서 및 도덕적 사회 질서의 유지와 이행에 대한 기대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신뢰를 능력에 대한 기대(expectations of competence)로서의 신뢰와 의도에 대한 기대(expectations of intentions)로서의 신뢰로 구분하였다. 능력에 대한 기대는 신뢰대상이 주어진 역할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믿음이고, 의도에 대한 기대는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신뢰대상이 맡겨진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믿음을 뜻한다(김자영, 2008: 21). 이러한 신뢰의 구분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신뢰뿐만 아니라 신뢰 대상이 제도일 때도 적용된다. 정치학자인 Barber는 정부신뢰를 구성하는 두 축으로 능력에 대한 기대에 해당하는

정부의 업무수행능력과 의도에 대한 기대라고 할 수 있는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규칙 신뢰감은 공적 신뢰에 해당하는 제도에 대한 신뢰이다. 김자영(2008)은 Barber(1983)의 분류에서 신뢰대상을 제도로 변환하여 다시 해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신뢰 대상이 주어진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 능력에 대한 기대는 제도가 내게 얼마나 쓸모 있을 것인가에 대한 믿음인 ‘유용성에 대한 기대’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신뢰 대상이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믿는 의도에 대한 기대는 제도가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가에 대한 믿음인 ‘공정성에 대한 기대’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규칙 신뢰감의 하위 요인을 신뢰의 내용에 따라 규칙 공정성과 규칙 유용성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 2) 규칙 신뢰감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급 의사소통 방식이 학생의 규칙신뢰감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탐구하여 궁극적으로 초등학교 학급 내에서 학생의 규칙신뢰감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 연구하고자 하는 ‘규칙 신뢰감’은 ‘초등학교 학급규칙 신뢰감’을 뜻한다. 이 절에서는 먼저 학급규칙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러한 규칙 개념과 앞 절에서 검토한 신뢰의 개념을 종합해 규칙 신뢰감의 개념을 이끌어내하고자 한다. 규칙 신뢰감의 개념을 정의한 후에는 규칙 신뢰감 형성을 위한 사회과교육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규범과 학급규칙

우선, 규칙 신뢰감에서 신뢰의 대상이 되는 학급규칙의 의미를 정의하고자 한다. 그 전에 먼저 규칙의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규범의 의미를 검토하여 규칙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Horne(2011)은 규범을 ‘사회 구성원 사이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

져 있으며, 이를 여기는 경우 사회적 제재가 따르는 규칙'으로 정의하였다(Horne, 20001: 5). 규범은 구성원의 행위를 제재하고 그들의 행위를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한다(Hechter & Opp, 2001). 구성원에 대한 제재가 따른다는 점에서 규범은 자연법칙과 달리 사회 구성원에게 '~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당위'를 포함하고 '의무'를 강조하게 된다(배화순, 2017: 8).

규범의 의미는 협의와 광의로 구별할 수 있다. 좁은 의미의 규범은 사회 구성원 사이에 합의가 되어 있으며 이를 여기는 경우 제재가 따르는 규칙이다. 이러한 규범은 공식적이고 명시적이며 가시적인 제재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법이나 규칙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공식적 규범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한편 넓은 의미의 규범은 공식적인 법이나 규칙뿐만 아니라 구성원이 공유하는 무형의 가치나 신념 전체를 포괄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규범을 가치의 산물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배화순, 2017; 이상형 2015; Horne, 2011).

본 연구에서의 학급규칙은 넓은 의미의 규범에 해당된다. 초등학교에서 적용되는 규칙과 중·고등학교에서 적용되는 규칙은 규칙의 내용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중·고등학교에서의 규칙은 상·벌점제의 기준으로 활용되어 규칙의 내용이 명시적이고 항목별로 가시적인 제재가 따른다. 반면, 초등학교에서의 규칙은 올바른 윤리관 정립을 위해 당위적인 가치나 신념을 포괄하고 가시적인 제재가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는 넓은 의미의 규범에 해당된다.

학생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학교에서 생활하기 위한 규칙을 배우고 익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급규칙은 사회에 존재하는 헌법과 법률처럼, 학습을 규율하는 보편적 규범으로서 작동한다(Jackson, Boostrom, & Hansen, 1993; McGinns, Frederick, & Edward, 1995). 초등학생은 헌법과 법률보다 학급규칙을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더욱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급규칙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학급규칙의 개념조차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하였다.

장진아(2016)는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교실 규범의 형성 방식과 규범의 관련 영역에 따라 교실 규범을 유형화시켰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교실 규범의 유형

기준	유형		의미	학자
형성 방식에 따라	비공식적 규범		구성원들 사이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 규범	홍영기 (2001), Buckley & Cooper (1978)
	공식적 규범		교사에 의해 공식적으로 형성된 규범	
관련 영역에 따라	비학문적 규범		학교생활 전반과 관련된 규범	Boostrom (1991)
	학문적 규범	사회적 규범	구성원 간 사회적 관계에 대한 규범	
		과제 수행 방법에 대한 규범	수업 진행 절차와 관련된 규범	
		특정 과목에 내재된 규범	학문 영역의 특징이 반영된 규범	

출처 : 장진아(2016: 39)

학급규칙은 먼저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었느냐에 따라 비공식적 규범과 공식적 규범으로 나눌 수 있다(장진아, 2016; 홍영기, 2001; Buckley & Cooper, 1978). 비공식적 규범은 작은 집단 내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또래 집단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또래 규범들을 들 수 있다. 반면, 공식적 규범은 권위자인 교사에 의해서 형성된 규범으로 주로 명시적으로 정형화된 형태를 갖는다(장진아, 2016: 39). 그러나 공식적 교실 규범이 교사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표현은 민주적인 교실 규범 형성과정을 무시한 표현이다. 공식적 규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교사가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형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 규범을 ‘교사와 학생이 함께 공식적으로 형성한 규범’으로 개

범화하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또한, 교실 규범은 규범이 어떤 영역에 적용되느냐에 따라서도 분류될 수 있다(Boostrom, 1991). Boostrom(1991)의 분류에 따르면 비학문적 규범은 학습 내용과 무관한 학교생활 전반과 관련되는 규범이다. 학문적 규범은 다시 사회적 규범, 과제 수행 방법에 대한 규범, 특정 과목에 내재된 규범으로 나누어진다. 사회적 규범은 교실 구성원간의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영역의 규범이고, 과제 수행 방법에 대한 규범은 수업을 진행하는 절차적 방법과 관련된 규범이다. 마지막으로 특정 과목에 내재된 규범은 특정 학문 영역의 특징이 반영된 영역 특수적 규범으로 볼 수 있다(장진아, 2016: 40). 다만, 이 분류는 교수·학습이 일어나는 교과시간 중의 교실 규범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규범을 학문적 규범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즉, 이 표에 나타난 사회적 규범은 교수·학습 과정 중에 발생하는 사회적 관계를 뜻한다. 그러나 학급 내 사회적 관계는 수업 이외의 학교생활 전반과 관련된 규범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표에 구분되어 있지는 않으나 비학문적 규범에도 사회적 규범이 포함된다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급규칙을 ‘학생들이 학급에서 생활하는 데 적용되는 공식적 생활규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먼저, ‘공식적’이란 학급 구성원들 사이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규칙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교사와 학생이 함께 고안하고 계획한 규칙을 의미한다. ‘생활규칙’이란 규칙이 적용되는 영역에 따른 것으로 학습 내용과 무관한 학교생활 운용과 관련된 비학문적 규칙이라는 뜻이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생활규칙에는 생활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규칙도 포함될 수 있다.

한편, 주의할 점은 여기서 학급규칙은 명문화된 명시적인 규칙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초등학교는 현장 특성상 규칙을 통한 생활지도가 학급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급마다 규칙의 명문화 정도는 다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급에서 생활하는 데 적용되는 생활규칙은 가시적인 제재를 위한 규칙뿐만 아니라 올바른 윤리관 정립을 위한 당위

적인 가치나 신념을 포괄하므로 모두 다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급규칙은 명문화된 것뿐만 아니라 명문화되지 않은 채 학급 구성원들에게 모두 공유되고 합의된 규칙을 모두 포함한다.

규범의 내용적 측면에서 보자면 사회 규범은 도덕적 영역과 사회 관습적 영역으로 구성된다. 도덕적 영역의 규범은 보편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의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고 대체로 고정적인 특성을 지닌다. 예로 들자면 ‘친구를 때리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다.’ 등이 도덕적 영역의 규범에 해당된다. 반면, 사회 관습적 영역의 규범은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규범으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의 조직화를 돕는다(Laupa & Turiel, 1986). 이러한 규범은 사회의 맥락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임의적이고 상대적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수업 종치기 5분 전에 자리에 앉는다.’, ‘복도통행은 오른쪽으로 한다.’와 같은 규칙이 사회 관습적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 학급규칙의 내용은 위의 예와 같이 도덕적 영역과 사회 관습적 영역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

## (2) 규칙 신뢰감의 개념과 내용요소

정의된 학급규칙을 바탕으로 학급규칙 신뢰감의 개념을 정의하기에 앞서 상위차원의 규범인 법 신뢰감과 학교규칙 신뢰감의 개념과 관련된 논의들을 간략하게 검토해 보고자 한다.

법 신뢰감의 형성 요인을 연구한 김자영(2008)은 법 신뢰감을 법의 내용, 법과 관련된 기관, 법과 관련된 사람이 얼마나 공정하고,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가에 대한 확신이라고 정의하였다. 강은영(2016)은 개인이 법을 신뢰한다는 감정이 법의 형성 과정과 법 내용 자체, 법의 적용을 통한 결정과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이라 보았다. 이에 법 신뢰감을 법의 형성과 법의 내용, 법의 시행이 얼마나 공정하고 내 삶에 유용한지에 대해 신뢰하는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전진현(2013)의 연구에서는 학교규칙에 대한 태도를 인지, 정서, 행동

영역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학교규칙에 대한 태도 중 정서적 영역을 학교규칙 신뢰감과 학교규칙 제정절차 신뢰감으로 구분하고 있다. 강은영(2016)은 학교규칙 신뢰감을 학교규칙이 얼마나 공정하고 학교생활에 유용한지에 대해 신뢰하는 수준으로 정의하고, 학교규칙의 형성절차, 학교규칙의 내용, 학교규칙의 시행에 대한 신뢰로 세분화하였다.

검토한 결과 선행 연구에서는 규범에 대한 신뢰의 내용으로서 유용성과 공정성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앞서 검토했던 신뢰의 유형 중 신뢰의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한 유형과 일치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규칙 신뢰감을 ‘학급규칙의 내용과 운영이 얼마나 공정하고 학교생활에 유용한지에 대해 신뢰하는 수준’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개념은 신뢰의 내용을 기준으로 ‘규칙 공정성’에 대한 신뢰감과 ‘규칙 유용성’에 대한 신뢰감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신뢰의 대상이 되는 학급규칙은 학생들이 학급규칙을 경험하는 과정을 고려하여 학급규칙 그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학급규칙 운영에 관한 내용도 포함한다. 학급규칙 그 내용 자체에 대한 믿음과 학급규칙을 형성하고 시행하는 것에 대한 믿음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규칙 신뢰감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신뢰의 내용과 대상에 따른 규칙 신뢰감의 분류

대상 내용	규칙 내용	규칙 운영	
		규칙 형성	규칙 시행
공정성	규칙 내용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	규칙 형성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	규칙 시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
유용성	규칙 내용의 유용성에 대한 신뢰	규칙 형성 절차의 유용성에 대한 신뢰	규칙 시행의 유용성에 대한 신뢰

학생들은 규칙 운영 과정에서 규칙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규칙과 관련한 경험에는 규칙 내용에 대한 판단, 규칙을 시행하며

경험한 교사와의 갈등, 규칙을 함께 형성하는 또래 학생들과의 대화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규칙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학생들이 형성하게 되는 규칙 신뢰감에는 앞서 신뢰의 개념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지, 정서, 행동적 차원이 항상 포함되어 있으며 혼재되어 있다. 이후 제3절에서 학생들이 학급에서 경험한 의사소통 방식이 학생의 규칙 신뢰감의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논의하고자 한다.

### (3) 사회과교육과 규칙 신뢰감

최근 신뢰의 개념은 사회적 효용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주목 받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협력적 행위를 촉진시켜 사회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조직의 속성’이다(Putnam, 1995). 사회적 자본에 대한 논의는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지만 사회적 자본이 안정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는 일반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이 많다. 신뢰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신뢰로 인해 관련 주체들의 협력적 행위를 촉진할 수 있고, 감시와 통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사회자본의 전형적인 예이다(황선영·곽한영, 2012: 1259). 또한 신뢰는 민주사회에서 참여의 정도와 방식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유지 및 발전에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논의에서는 대체로 대인 간의 신뢰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대인적 신뢰가 높고 법과 제도에 대한 공적 신뢰가 낮은 ‘저신뢰 사회’로 분류되는 만큼 공적 신뢰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강은영, 2016; Fukuyama, 1995). 작고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사회질서가 다른 개인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 및 유지된다. 반면, 개인들 간의 네트워크가 복잡해지고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적 신뢰를 개인적 신뢰 유형에 의해서만 창출될 수는 없게 되었다. 사람들은 법이라는 제도를 통해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고 위험에 대한 담보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강은영, 2016: 22). 공적 신뢰



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법과 제도에 대한 신뢰감은 개인 간의 신뢰를 창출하고, 공동체에서 협력적 행위를 촉진시키는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또한, 규범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규범의 적용 및 집행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방법으로 감시와 처벌 수단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거대화된 현대 사회에서 감시와 처벌을 통한 협력 혹은 사회 공동체의 유지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며, 일정 단계에 이르면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강제적인 집행 대신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통해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을 보장하는 것은 효율적이며 사회구조를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다(황선영·곽한영, 2012: 1268-1269)는 점에서 규범신뢰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신뢰는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변하지도 않기 때문에 교육적인 접근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형성할 필요가 있다(김자영, 2008: 3). 따라서 신뢰의 형성은 민주 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회과 법교육의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법과 제도가 국민 개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법 규범을 통해 공동체의 생활이 보다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민들이 인식하게 된다면 신뢰와 협력의 강력한 기반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황선영·곽한영, 2012: 1270).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법교육은 생활지도 과정에서 규범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지도 과정에서의 법교육은 학생들이 학교의 일상에서 법적 생활 맥락을 경험하고 그 경험에 대한 생각을 형성하며, 그런 개념화를 바탕으로 법과 규범의 준수에 대해 나름대로의 일반화와 결론에 이르게 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야 한다(박성혁·박선운, 2009: 73).

법은 한 사회의 약속이므로, 법교육은 작은 공동체 내의 약속인 규칙의 이해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정상우, 2013).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학교 규칙 또는 학급규칙이 자신이 생활하는 데 유용하며 규칙의 집행과 결과가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학생들은 규범 신뢰감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신뢰감은 규칙 준수 의지와 태도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학생들의 학교규칙 내용과 시행에 대한 신뢰감이 범신뢰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인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강은영, 2016: 142). 따라서 법교육을 통해 형성된 규범에 대한 신뢰는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 2. 민주적 의사소통

### 1) 의사소통의 개념과 특성

‘소통(疏通)’이 막히지 않고 서로 오고 갈 수 있음을 뜻하는 상호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의사소통’은 의견이나 의사가 오해 없이 서로 잘 전달되는 것을 말하며 막힘없이 길을 뚫어 놓아 오고가고 할 수 있는 상태일 때 사용할 수 있는 말이다(전숙경, 2009: 201). 즉 ‘의사소통’은 대화 참여자 모두가 화자가 되는 동시에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청자가 됨을 의미한다. 이때 의사소통은 음성을 통한 의사소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의견이나 의사를 전달하는 의사소통의 기본 형태에는 언어적(verbal) 또는 비언어적(nonverbal) 행위가 있다. 음성을 통한 언어행위는 의사를 전달하는 가장 명확한 행위이지만 비언어적인 측면 역시 매우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Hills, 1987: 55). 의사소통의 사전적 의미와 형태에 따른 접근을 종합해 볼 때, ‘의사소통’은 참여자들의 상호성에 기반을 둔 언어적, 비언어적인 소통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의사소통에 관한 논의는 매체를 이용한 소통을 의미하는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영역과 조직 경영학에서 주로 이루어져왔다. 논의 대상은 누구와 얼마나 소통하는지에 중점을 둔 의사소통의 양에 대한 연구와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초점을 둔 의사소통의 질에 대한 연구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는 의사소통의 질(quality)의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의사소통의 질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어떤 의사소통이 양질의 의사소통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방법에는 숙의적 모델에 기반하는 접근법이 있다. 숙의(熟議, deliberation)란 대화와 토론을 통한 심사숙고의 과정이다. 공적인 사안, 의견불일치, 이견(異見)의 경청을 통한 지식의 확장, 사안과 자신의 의견에 대한 심사숙고, 대화를 통한 상호 간 이해 및 신뢰형성, 양질의 의견형성과 의사결정 등은 숙의의 과정이자 결과다(Bohman, 2000). 숙의민주주의 주창자들은 공공 사안들에 관한 토론 과정에 시민들의 자유롭고 평등하며 열린 참여를 실현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수준을 진전시키고자 한다.

Barber(1984)에 따르면 숙의는 인지적 차원뿐만 아니라 감정적, 태도적 차원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과정이다. 이 장에서는 숙의민주주의 이론가들이 상정한 ‘숙의적 대화’의 조건이 교실 의사소통 방식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숙의의 조건 중 인지적 차원의 의사소통 합리성과 감정적, 태도적 차원의 의사소통 개방성을 중심으로 의사소통 관련 이론을 검토하고자 한다.

### (1) 의사소통의 합리성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다. 합리적 의사소통이란 주장을 제시할 때, 단순히 주장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며 타인의 주장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뜻한다. 자신의 주장을 말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찾는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의 견해를 더욱 정교화하고 높은 수준의 의견을 계발할 수 있다(Fishkin, 1995; Gastil & Dillard, 1999; Kim et al, 1999). 이러한 말하기의 모습은 대화의 상대자로 하여금 납득을 얻어낼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상호 간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Habermas, 1981). Habermas는 의사소통행위를 정의하고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이해를 강조하였다. 그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의사소통행위

Habermas는 의사소통 행위이론에서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사회적 행위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는 개별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개별적 행위계획들의 조정이 논의의 중심대상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이러한 기본관점은 ‘언어’에 새롭게 주목할 것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상호작용의 중심매체가 바로 언어이기 때문이다(김원식, 2004). Habermas의 행위 이론은 다음과 같이 유형화된다.

〈표 4〉 Habermas의 행위 유형

행위상황 \ 행위의지향	성공지향	상호이해지향
비사회적	도구적 행위	-
사회적	전략적 행위	의사소통 행위

출처 : 김원식(2004). 247.

Habermas는 행위 유형을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구별하였다. 첫 번째로 행위자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성공지향적 행위와 상호이해지향적 행위가 구별된다. 성공지향적 행위는 행위자가 행위 주체인 자신의 행위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데만 목적을 둔다. 이에 반해 상호이해지향적 행위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계획의 달성보다 행위의 대상인 상대방과의 상호이해와 동의를 목표로 한다.

두 번째로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따라 구별된다. 여기서 사회적 상황이란 그 행위의 상대방이 말하고 행위 하는 주체로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도구적 행위는 기술적 행위 규칙의 준수라는 측면만이 강조되어 상대방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의 결과만을 평가한다. 전략적 행위는 성공지향이라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도구적 행위와 같다. 그러나 상대방의 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도구적 행위와 다르다. 의사소통적 행위란 서로 대화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

대화를 통해 행위 주체와 행위 대상이 상호이해라는 인격적 관계로 들어 서게 되는 것을 뜻한다(송현정, 2010: 241). 의사소통적 행위에 있어서 행위 참여자들은 자아중심적 성취계산으로 성공을 지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이해의 상호작용을 갖게 되는 상호주관적 주체가 된다(한주경, 1996).

Habermas는 위와 같은 행위 유형들을 바탕으로 Weber, Adorno, Horkheimer의 합리성 이론이 등한시 하고 있는 측면을 밝힌다. Weber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구적 합리성이 드러난다고 보았다. 도구적 합리성이란 가장 합리적인 수단과 방법을 극대화시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이 행위에서는 비판적 성찰이 배제되어 결국 합리성의 증대는 비합리성의 심화를 가져온다. Horkheimer와 Adorno 역시 근대를 기점으로 이성이 도구화되어 본질을 상실한 채로 인간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이들의 연구는 합리성의 문제를 논의하며 근대성과의 연관 관계를 탐구하였으나 합리성을 일면적으로만 파악했다는 한계가 있다(기혜경, 2011: 6).

Habermas는 의사소통 합리성 이론을 통해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상호 이해를 중요한 행위의 목표로 전제한다는 것을 밝힌다. 이들은 일방적인 측면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이해에 도달하고자 하며 합의를 통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기혜경, 2011: 6).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란 상호이해를 지향하는 의사소통적 행위에 내재하는 합리성이다. 도구적 행위 및 전략적 행위가 전제하는 합리성을 목적 합리성 또는 도구적 합리성이라고 한다면 의사소통 행위가 전제하는 합리성은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다

#### 나. 의사소통 합리성의 전제 조건

의사소통 행위가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갖기 위한 전제로는 이해가능성, 진리성, 정당성, 진실성이라는 네 가지 요건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타당성 요건을 자유롭게 검증할 수 있는 담화상황을 Habermas는 이상적 담화상황이라고 제시하였다. 첫째, 이해가능성은 화자의 발언이 어떤 뜻

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이는 언어에 대한 내재적인 요구로 문장의 문법구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상호 이해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조건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둘째, 진리성은 말하는 내용이 참이고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객관적인 세계와 관련한다. 셋째, 정당성은 말하는 내용이 승인된 규범적 맥락 속에서 타당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사회적 세계와 관련한다. 넷째, 진실성은 청자가 화자의 발언을 신뢰할 수 있도록 화자가 성실하고 진실된 자세로 대화에 참여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표현된 의도가 화자의 실제 의도와 같은지의 여부에 달려있으며 주관적 세계와 관련한다.

이상적 담화상황에서 모든 참여자는 네 가지 타당성 검증요구에 응해야 한다. 토의참여자들은 모두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받아야 하며, 자유롭게 언어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 또한 대화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막기 위한 어떤 억압적 수단도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김우미, 2009: 61). 이상적 담화상황은 행위자들에게 합리적 동기를 부여하고 또한 강제성 없는 구속력을 갖는다(김재현, 1996: 124). 참여자들이 이해가능하고, 참되며, 정당하고, 진실된 토의를 통해 합의했다면, 두 참여자는 모두 합의사항을 이해할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Habermas의 ‘담론윤리적 원칙’ 이다(김우미, 2009: 61).

그러나 이상적 담화상황은 현실 사회의 다양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언어행위나 의사소통을 분석함으로써 귀납적으로 이끌어 낸 결론은 아니기 때문에 현실 사회에서 이상적 담화상황이 그대로 실현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Habermas 또한 「진리론」에서 그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규범적 이상이고 규제적인 이상이며 따라서 선험적 가상으로 보일수 있다고 한다(Habermas, 1973: 259). 하지만 이상적 담화상황은 지금의 의사소통 현실을 성찰하고 비취보는 비판의 토대이자 평가의 규범적 척도로 제시될 수 있다(이상린, 2005: 28).

#### 다. 생활세계에서의 의사소통 합리성

Habermas는 의사소통행위와 더불어 2차원적 사회 개념을 제시한다. 체계는 도구적 합리성을 주 근거로 이루어지는 세계이며 ‘권력’과 ‘화폐’를 매개로 통합되는 영역이다. 이 영역은 경제나 관료제와 같이 효율성의 원칙에 의해 지배되고 대상을 객관화시켜 통제하고자 하는 기술적 인식관이 지배하는 공간이다. 생활세계는 체계에 대항하는 개념으로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주 근거로 이루어지는 세계이다. 이 영역은 ‘언어’를 매개로 통합된다. Habermas는 생활세계를 사회 구성원들이 배경지식으로 공유하고 있는 상호주관적인 삶의 맥락으로 정의하고 있다(윤평중, 2003: 152). 이때 상호주관성의 영역을 창출하는 것이 의사소통행위이다.

그에 의하면 원래 체계는 도구적 합리성이, 생활세계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지배한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해지고 광범위해지면서 체계의 도구적 합리성이 생활세계의 영역을 침범하여 생활세계마저 도구적 합리성의 지배아래 두려고 한다. 체계의 침범을 받은 생활세계는 차츰, 효율성의 원칙만을 추구하며 성찰적 특성을 지닌 의사소통 합리성과 멀어진다. 이렇게 체계의 합리성이 생활세계의 영역을 침탈하는 현상을 ‘생활세계의 식민화’라고 한다(김우미, 2009: 63). Habermas는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가 진행된다면 돈과 권력의 유입에 의해 사회 구성원의 규범적 부재가 발생하게 되며 의사소통 행위에 의해 달성되는 규범적 근거가 장애를 받게 된다고 보았다(정철희, 2001).

생활세계가 ‘생활세계의 식민화’ 현상에 저항하는 방법은 공론영역을 통해 체계에 의사소통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공론영역은 생활세계와 체계가 만나는 지점에 형성되는 영역으로 생활세계에 침범하는 체계의 권력을 여과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민주사회에서 시민들은 대중매체, 여론 등의 공론영역에서 의사소통적 권력을 형성하여 입법과정을 통해 법 권력으로 체계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김우미, 2009: 64).

Habermas의 2차원적 사회 개념에 따르면 학교 교실은 언어를 매개로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생활세계이다. 그리고 학급에서 공적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체계와 생활세계를 연결해줄 공론영역에 해당된다.

그러나 교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적 의사소통이 도구적 합리성에 따르지 않았는지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규칙을 통해 교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학생들을 규제하기 위한 소통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도구적 합리성에 지배받은 의사소통행위이다. 언어를 매개로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학급 구성원 간의 상호이해를 목적으로 한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따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라. 의사소통적 합리성 이론의 의의와 한계

Habermas는 의사소통의 결과로 나타나는 합의 그 자체보다는 합의를 도출하기까지의 과정과 능력, 의사소통 행위와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더 강조점을 둔다(김영옥·방정윤, 2006; Godin et al, 2007). 언어는 의사소통의 단순한 도구나 매개라기보다는 개인 간의 어울림과 사회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의 근본적 기제라는 점이 Habermas가 생각하고 있는 언어의 가치이며 의사소통의 바탕이다(송현정, 2010: 242). 이제까지 논의된 의사소통행위 이론은 이상적 담화 상황에 기반하여 적극적인 의사소통 행위가 발생할 때 공론장으로서 숙의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김영옥·방정윤, 2006)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상호이해에 도달하는 언어적 행위가 꼭 Habermas의 주장에 따른 타당성 논증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Habermas에 따르면 의사소통 당사자들이 상호이해 또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담화 참여자의 발화가 이해가능성, 진리성, 규범적 정당성, 진실성과 같은 화용론적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를 충족시킨 주장은 청자를 합리적으로 설득시킨다. Habermas는 의사소통 행위의 목적이 성공지향이 아닌 상호이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장한 네 가지 타당성 요건은 발화자의 담화 내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이 어떠한지 하는가에 대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합리성을 전제하는 네 가지 조건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이상적이어서 현실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는다.



네 가지 타당성에 대한 현실적 한계를 차치하더라도 Habermas의 의사소통 합리성 이론은 또 다른 한계를 갖는다. Young은 논증 위주의 담론이 문화적으로 치우치면서 협소화된다는 점을 지적한다(Young, 1996: 120-124). 근대 서구의 제도적 맥락에서 형성된 숙의의 규범은 중립성과 보편성을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편향과 배제의 전략을 내재하고 있다(홍남기, 2009: 196). 오늘날 숙의민주주의 논의는 상호이해보다 논증을 중시하는 암묵적인 편향을 보인다. 이러한 편향에 따를 때 논쟁을 좋아하고 그러한 논쟁의 규칙을 잘 아는 사람들이 특권을 누릴 수 있다. 이에 반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감정적 표현이나 구체적인 행동은 극히 사소하게 취급되거나 간과된다. 이에 따라 문화적으로 다르거나 사회적으로 불리한 사람들은 숙의의 과정에서 좌절하거나 침묵할 수 있다. 따라서 분리보다는 통합을 출발점으로 하는 논증적 토론이 포용보다는 배제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홍남기, 2009: 196).

특히나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의사소통은 초등학교 학급 내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이다. 아직 논리력이나 비판적 사고력, 고차사고력을 함양해 나가는 시기인 학생들에게 의사소통의 논리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발달시기상 맞지 않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타당성 논증만을 강조하는 것은 개별 학생들 간의 차이를 간과하고 명석하고 논리적인 학생만이 우위를 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2) 의사소통의 개방성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논리적이고 타당하게 제시하는 것은 그 중요성과 혜택에도 불구하고, 쉽게 성취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장과 근거의 제시가 타당하게 제시되었다고 해서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서로를 이해하는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상대방의 입장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개방적인 태도이다.

먼저, 개방적인 태도의 출발점은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경청

이다. 대화과정에서 경청의 중요성은 Montaigne(1958)도 강조한 바 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대화에 불만족하는 이유는 자신의 주장에 의문이 제기될 경우, 이를 듣지 않으려하기 때문이다. Bohm(1996)은 타인의 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misconception)조차도 새로운 생각을 창조하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다며, 대화에서 경청이 갖는 미덕을 논했다. 한편, Mill(1978)은 민주주의와 보다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맥락에서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개인의 입장과 견해는 언제나 오류의 가능성을 가지기 때문에, 비판을 항상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끊임없는 대안 경청의 과정을 통해, 비로소 개인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실천할 수 있다고 봤다(노성중·민영, 2009: 179).

Barber(1984)는 『강한 민주주의(Strong Democracy)』에서 담화가 “말하는 것(speaking) 못지않게 귀 기울여 듣기(listening)를 수반한다.”고 봤다. 그에 의하면 담화는 분명히 표현하는 것뿐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 말하는 것뿐 아니라 듣는 것, 발언하는 것뿐 아니라 감정이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Barber가 강조한 경청은 다음 맥락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내가 들을 것이다”(I will listen)는 ‘상대방의 입장을 살살이 뒤져 약점을 찾아내고 타협할 수 있을 만한 사항을 찾아낼 것이다.’를 의미하지 않으며, 더욱이 ‘상대방이 무슨 선택을 해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관용할 것이다.’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 말은 “그의 입장에서 보고, 이해하려 하고, 바짝 긴장하여 서로 공감하는 내용을 들으려 하고, 공동목표나 공공선에 관한 공동의 수사학적 표현을 찾기 위해 귀를 기울일 것이다”를 의미한다(Barber, 1984: 263).

개방적인 태도는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것에서 나아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대화는 정신을 확장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고(representative mind)를 배양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각에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람들을 자신의 개인적 이익으로부터 해방시켜 준다고 믿어져 왔다(김주환,

2005: 83). Arendt는 이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내가 주어진 주제에 대해 고민할 때, 내 머릿속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점이 들어 있으면 그들의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낄지 더 잘 상상할 수 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더 강해질 것이며, 나의 최종 결론이나 의견들이 더 타당해진다. 의견 형성의 과정은 정신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상황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이 상상력 발현의 조건은 사심 없음, 개인의 이익으로부터의 자유이다(Arendt, 1967: 115).

Arendt는 상대방을 포용하면서 상호 정당화되는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확장된 정신(enlarged mentality)’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확장된 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판단 주체가 상상력을 통해 타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홍남기, 2009: 197). 이때 고려되는 타자의 입장은 판단 주체의 정신적 확장이나 상상력에 의해 상상된 것이며 실제 타자의 입장은 아닐 수도 있다(Banner, 1982: 167). 중요한 것은 타자의 실제 상황에 거리를 두고 타자의 입장에 매몰되지 않은 채 그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들을 함께 고려해보는 것이다(홍남기, 2009: 197).

개방적인 태도의 가장 높은 수준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관용(toelrance)의 개념과 연관된다. 관용은 소극적인 관점에서 보면 ‘싫어하거나 인정할 수 없는 대상이 현전할 경우 인내를 가지고 참는 태도’를 뜻한다(조영제, 1997). 한편, 이동훈(2009)은 관용을 묵인이나 불간섭과 같은 소극적 수준을 넘어 다름에 대한 인정과 상호 교류를 포함한 적극적 개념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용은 숙의민주주의 실현에 필수 요소로 여겨지기도 한다. Bohman(2003)에 따르면, 숙의는 관용을 요구하는 과정이며, 구체적으로 의견의 차이를 감안하고, 차이와 공존하며, 차이에 대해 일정한 사회적 영역을 허락하는 것이다.

종합하자면 의사소통의 개방성이란 대화 참여자가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수준을 말한다. 이는 상대방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는

것, 상대방을 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깊이 이해하는 것, 그리고 자신과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의사소통 관련 이론과 논의들을 검토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방식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으로 의사소통의 합리성과 의사소통의 개방성 두 가지를 설정하고자 한다. 이는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에서 숙의적 대화의 조건으로 ‘근거 있게 말하기’와 ‘주의 깊게 경청하기’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민영·노성중, 2009).

## 2) 민주적 의사소통과 시민교육

의사소통은 교육에서 빠뜨릴 수 없는 활동이다. 교육에서 의사소통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상적인 교육의 목적이나 수업의 목표는 언제나 구체적인 의사소통의 과정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전숙경, 2009: 199).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사소통이란 대화 참여자들의 상호성에 기반을 둔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인 소통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의사소통의 이러한 의미를 교육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교육과 의사소통의 관계에서 제기된다. 교육활동에서의 의사소통에는 교육활동에서 파생되는 의도성과 의사소통에서 파생되는 상호성의 특성이 함께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에서의 의사소통이 갖는 의미를 알아보고, 초등학교 교실 상황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의 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의사소통의 교육적 의미

의사소통이 교육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의 문제는 교육의 목적, 의미, 본질과 관련되어 있다. 교육의 본질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교육은 사회의 여러 지식과 가치를 학생에게 주입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교육의 의미는 하나의 지식 또는 가치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고 열린 가치와 내용을 갖고 있다. Oakeshott는 교육이 자라나는 세대로 하여금 어른들의 행위를 모방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인간답게 행동하는 것을 학습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교육이 전(前)세대가 만든 유물을

다음 세대에 기계적으로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Oakeshott, 2003: 36).

Bollnow는 교육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고유한 삶을 위한 본질적인 물음 안에서 그 스스로 자신의 세계관과 행동방식에 작용하는 영향들의 감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하며, 그 스스로 자주적인 판단을 형성하여야 한다고 보았다(Bollnow, 1971: 199-203). 즉, 그는 인간의 자율성과 비판능력의 증진, 고유한 인격의 추구를 교육의 목적으로 보았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과 본질이 고유한 인격을 추구하는 인간의 자율성과 비판능력의 증진에 있다고 볼 때 그 과정에서 학생이 수동적인 존재로 머무를 수는 없다. 진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고에서가 아니라, 오직 공동의 실체적 대화 속에만 들어 있다. 따라서 교육의 언어, 교육에서의 의사소통도 교사의 독백적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화적 관계 속에서 진정한 교육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전숙경, 2009: 38; Bollnow, 1971).

전숙경(2009)은 교육적 의사소통을 ‘교사와 학습자 간의 인격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한 학습자 중심의 구두적, 비구두적인 소통’으로 정의하고 이를 학습자를 변화시키는 힘의 관점에서 세 가지 차원으로 구별하였다(전숙경, 2009: 28). 첫째,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의 의사소통이다. 이것은 전달이라는 용어가 뜻하듯이 학생이 이전에 몰랐던 지식을 교사에 의해 또는 다른 교육의 매체를 통해 얻어내는 행위이다. 개념의 설명, 개념의 이해, 문제풀이, 기술의 연습 등과 같이 주로 교과수업 시간에 발생하는 소통이며, 이 차원에서 학생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지식을 획득하게 되지만 앎의 영역의 한 부분으로 자리할 뿐이다.

둘째, 학생의 앎과 이해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차원의 의사소통이다. 자신이 알던 앎을 기초로 하여 점차적으로 앎의 세계를 확장시켜나가는 소통으로 교육대화, 도덕의 내면화, 역사인식의 내면화 등의 차원이 이에 해당한다. 주로 생활지도나 진학지도의 의사소통이 여기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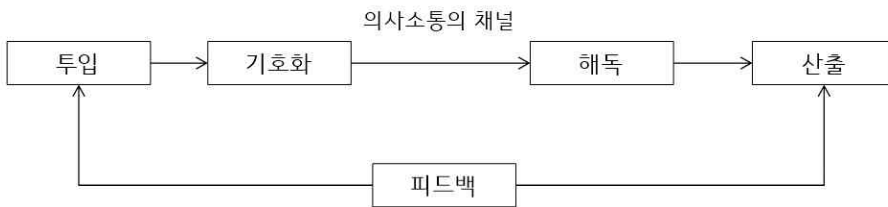
셋째, 사고의 전환 차원의 의사소통이다. 이 차원에서 학생들은 기존

의 앎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앎에 직면하고 기존의 앎을 포기해야 하는 전환에 서게 된다. 앎의 토대를 이루는 가치관이나 윤리적 각성, 종교적 회심 등과 관련 있다.

이렇게 볼 때, 교육적 의사소통은 본질적으로 지식의 전달에 머물지 않으며 이해의 심화와 가치의 내면화, 인식의 전환을 향하는 의사소통이라고 말할 수 있다(전숙경, 2009: 32).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교육활동은 결국 대화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다만 의사소통이 하나의 장면이 아니라 과정으로 일어나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연구하고자 하는 의사소통의 맥락과 상황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으로는 의사소통의 주체가 되는 교사와 학생의 대화적 관계를 알아보고, 이 연구가 주목하고자 하는 의사소통의 영역을 밝히고자 한다.

## (2) 초등학교 교실 내의 의사소통

### 가. 교사와 학생의 대화적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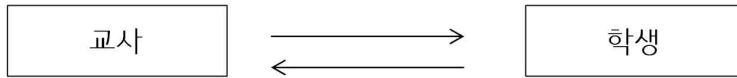


[그림 1] 의사소통의 기본 모형

출처: Teaching, Learning and Communication, P. J. Hills(1979). 장상호 역(1987).

[그림 1]은 의사소통의 기본적인 모형을 나타낸다. 이 그림에 따르면 의사소통은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투입-산출-피드백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산출은 투입이 일어난 후에 나타나는 반응이다. 물론 피드백이 이 과정에 순환성 혹은 상호성의 의미를 부여하지만, 피드백 역시 산

출 이전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위의 모형을 참고한 교사와 학생 간 의사소통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교사와 학생의 대화관계 1

출처: Teaching, Learning and Communication, P. J. Hills(1979). 장상호 역(1987).

[그림 2]는 이전에 비해 의사소통의 의미를 살리고 있지만 아직도 대화 참여자 간에 생성되는 동시성이나 상호성을 투입과 산출이라는 형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화살표가 나아가는 방향에 따라 교사와 학생 중 한 사람은 주체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객체가 된다(이정표 외, 2012: 650). 따라서 이정표 외(2012)는 이 도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교사와 학생의 대화관계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 3] 교사와 학생의 대화관계 2

출처: 이정표 · 이주영 · 권동택(2012: 651)

[그림 3]에서 교사와 학생은 시간적 순서가 있지도, 주체와 객체가 구별되지도 않은 완전한 동시성과 상호성을 지닌 이상적 관계이다. 이 차이는 교육철학자 Buber의 대화철학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인간 삶의 양태를 ‘나-그것’의 관계의 인식론적 관심과 ‘나-너’ 관계의 존재론적 관점으로 이해한다(Buber, 1955). ‘나-그것’의 관계에서 나는 상대자를 ‘그것’으로 수단화시켜 모든 존재를 나의 관점에서 이용하고 해석해낸다. 이때 나는 ‘그것’과 분리되어 주체로서의 나가 되고, 나는 스스로 자기의 존재 의미를 세우기 위해 타자를 대상화시키는 인식론

적 관점을 드러낸다. 반면, ‘나-너’의 관계에서의 나는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너와 동등한 존재이다. 따라서 나 또는 너보다도 나와 너가 함께하는 그 ‘사이’ 혹은 ‘우리’를 강조한다. 여기서 나와 너는 서로의 주체성을 각각 가지며 서로가 서로의 존재 의미를 밝혀주는 ‘나-너’의 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나-너’ 관계는 존재론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이정표·이주영·권동택, 2012: 651).

#### 나. 공론장으로서의 초등학교 교실

초등학교 교실에서는 날마다 다양한 의사소통이 일어난다. 초등학교 교실에서의 의사소통을 일어나는 상황에 따라 구분하면 크게 교과 학습에서의 의사소통과 교과 외 활동에서의 의사소통으로 구별할 수 있다. 교과 학습에서의 의사소통이 교수·학습 상황을 중심으로 교사와 학생 간에 일어나는 의사소통이라면 교과 외 활동에서의 의사소통은 학급에서 일어나는 생활지도와 진학지도 그리고 일상적 대화가 이에 해당한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의사소통은 교과 외 활동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 중에서도 공적 영역과 관련된 의사소통이다. 공적 영역이란 학급 구성원 다수에게 해당되는 주제로 의사소통하는 상황을 말한다. 공적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을 예로 들자면 학년 초의 급훈과 교실 규칙의 설정, 학급 문제의 예방 및 해결, 학급 행사 관련 토의 등이 있다. ‘작은 사회’라고 불리는 학교, 그리고 더 그보다 더 작은 사회인 학급의 단위에서 보자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학급 단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공적 주제에 대한 대화 그리고 전체가 함께 의사 결정할 때 나누게 되는 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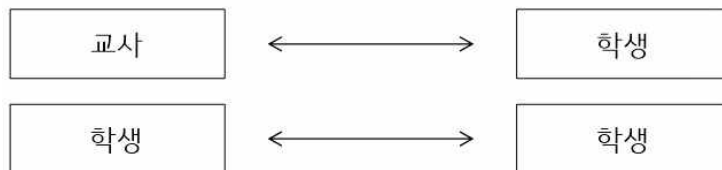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교실은 공론장의 의미를 갖는다. 공론장이란 사적인 시민들이 매일매일 생활을 하고, 뉴스 미디어를 소비하면서 공적 사안들에 대해 대화하고, 의견을 형성하고 정치적 참여를 하는 생활세계이다(김주환, 2005: 76). 공론장은 체계와 생활세계를 연결해주는 기제이자 기능하고 있는 민주주의에 정당한 권위를 부여해주는 여론의 원천이



다(Rutherford, 2000). 또한 공론장은 상이한 관점들과 무수한 입장들이 공존하면서 다원적 시민성이 실현되는 공동의 세계이다(Arendt, 1958: 52-58).

정치적 대화를 나누는 공론장과 같이 교실에서도 학급 구성원이 공적인 주제에 대해 의사소통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이는 토의나 토론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일상적인 대화로도 나타난다. 초등학생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교실에서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로서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공적 영역에 대한 의사소통 시에 학생들은 저마다 상이한 입장과 의견을 보인다. 각자의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여론이 형성되기도 하고 합의가 도출되기도 한다. 이는 공론장에서 발생하는 공적 숙의의 형태와 유사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숙의의 조건 중 의사소통 합리성과 개방성을 교실 의사소통 방식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또한 학교에서의 의사소통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 대부분이 연구 범위를 학생이 교사와 의사소통한 경험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의 의사소통 모두를 연구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교실을 하나의 공론장으로 상정하였을 때 의사소통 참여자는 교사와 같은 반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 모두가 되기 때문이다. 학생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학생은 교사뿐만 아니라 동료 학생들과도 소통하게 된다. 따라서 앞서 살펴보았던 초등학교 교실 내 교사와 학생의 대화관계는 다음과 같이 확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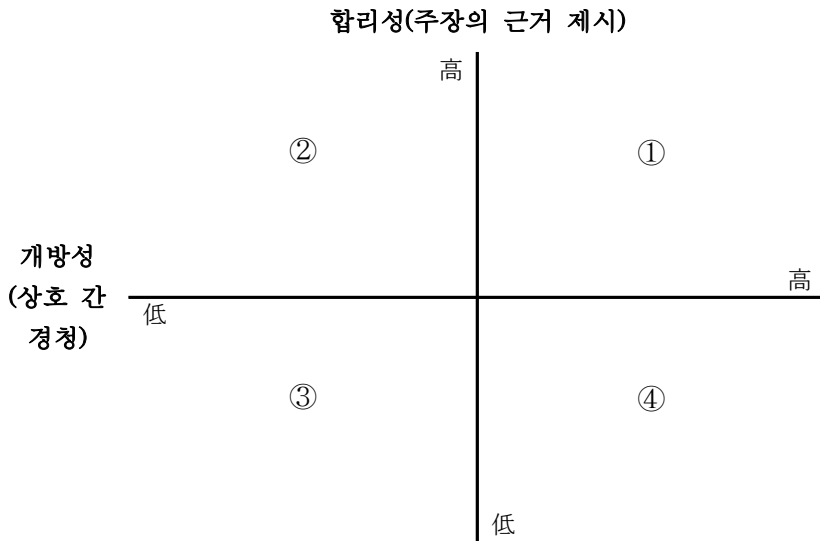
[그림 4] 교실 내 대화관계

이는 ‘교사-학생’ 과 ‘학생-학생’ 이 모두 ‘나-너’ 의 관계에 있음

을 뜻한다. 교실 내 공적 영역과 관련된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동등한 존재가 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총체적인 학급 의사소통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의사소통 모두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한다.

### (3) 민주적 의사소통의 시민교육적 의의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민주적 의사소통 방식을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학급 내 의사소통 방식의 민주성을 분석하기 위해 의사소통의 합리성과 의사소통의 개방성이라는 두 가지 분석기준을 설정하였다. 교실 내 의사소통은 합리성과 개방성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그림 5] 교실 내 의사소통의 유형**

각 유형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 1형은 주장의 근거 제시와 경청이 모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이는 쌍방향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태로서 민주적 의사소통이라고 개념화할 수 있다. 제 2형은

주장의 근거 제시는 활발한 반면 상호 간 경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각자의 주장만 난무하는 상태로 일방향적 의사소통의 형태이다. 제 3형은 주장의 근거제시와 상호 간 경청 모두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혼란한 학급 분위기 속에서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불통(不通) 또는 의사소통의 부재(不在)의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제 4형은 상호 간 경청은 이루어지지만 주장의 근거 제시는 미약한 상황이다. 이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수용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상태로 학급 구성원이 수동적인 태도로 존재한다.

초등학교 교실의 경우 제 4형의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초등학교의 경우 논리적 사고력을 함양하고 있는 시기이므로 자신의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것이며, 교사의 말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태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수용하는 태도도 의사소통에서 중요하지만 의사소통의 내용이 타당한 근거에 바탕을 두지 않는다면 어떠한 의견이든 수용하게 되는 빈 껍데기의 의사소통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교실 내에서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는 의사소통의 합리성과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의사소통의 개방성이 모두 높은 제 1형의 상태로 전환되어야 한다.

학급 내에서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학생들에게 일상적 민주주의의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민교육적 의의가 크다. 사회과 영역에서 민주주의는 교과 차원에서 정치 원리로 다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교육적 효과도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초등학생에게는 정치원리로서 접근하는 민주주의의 의미가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민주주의에 대해 이론적으로 학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자신이 생활하는 일상 속에서 비민주적인 경험을 한다면 이는 오히려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는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반감을 형성할 수도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에게는 민주주의를 정치 원리보다 생활 영역을 다루는 방식으로 접근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학급 내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적인 의사소통의 경험은 학생의 시민적 자질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3. 의사소통과 규칙 신뢰감

본 연구는 합리성과 개방성의 조건을 충족한 학급 의사소통 방식이 학생의 규칙 신뢰감이라는 인지, 정서적 차원의 태도를 어떻게 함양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규칙 신뢰감의 개념과 중요성을 확인하고 의사소통의 개념과 민주적 의사소통의 조건을 다루었다. 또한 Habermas의 의사소통 합리성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개방적 태도를 포함한 민주적 의사소통 방식을 정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민주적 의사소통방식이 규칙 신뢰감 형성이라는 목표를 함양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의사소통 방식의 하위요소들이 어떻게 규칙 신뢰감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 1) 소통을 통한 신뢰 구축

앞서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왜 중요한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황선영·곽한영(2012)는 소통(communication)이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았다. 협력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상대방을 일방향적으로 신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 역시 상대방에 의해 신뢰받고 있다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전달’ 보다는 ‘소통’의 차원에서 신뢰 구축의 방향이 이루어져야 한다(황선영·곽한영, 2012: 1270)는 것이다.

사회자본론에 따르면 사회적 네트워크는 신뢰를 조장한다. ‘컴퓨터 죄수의 딜레마 대회’를 통한 Axelord(2006)의 결론에 의하면, 협력은 호혜주의로부터 생기고, 호혜주의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부터 생긴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 사이의 관계맺음인 사회적 네트워크는 지속적인 감성적, 도구적 교류와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 참여자들이 상호 의무와

기대에 기반한 호혜성을 경험하게 하며, 이러한 호혜성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호신뢰감이 증진된다(차재권·류태건, 2017: 59).

사회적 네트워크란 사회적 행위자들이 서로 맺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관계들이라고 정의된다(Scott, 2000: 3). 송현정(2010)은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가 네트워크 구조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사회적 소통의 중요성을 제기한다.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을 엮는 구조적 견고함뿐만 아니라 행위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관계적 구축 또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관계적 구축을 촉진하고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행위자들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 활동이 필요한데 그 행위의 기본요소는 바로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송현정, 2010: 238).

정리하자면, 사회 구성원은 의사소통을 통해 다른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며 관계를 맺고 신뢰를 형성하게 된다는 점에서 신뢰 구축의 기제로서의 소통이 강조된다. 신뢰의 형성이 단면적인 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 즉 소통의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

## 2) 학급 의사소통 방식과 규칙 신뢰감

본 연구에서는 규칙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한 의사소통 방식의 조건으로 개방성과 합리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신뢰의 개념 및 형성 요인을 인지, 정서, 행동적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먼저, 규칙 신뢰감은 의사소통의 합리성이라는 인지적 과정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 의사소통의 합리성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신뢰를 합리적 선택으로 보는 관점에서 추론할 수 있다. 개인은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상대방의 의견과 근거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따랐을 때의 이익과 손실을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한 인지적 사고에 의해서 개인은 신뢰 대상에 대해 신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규칙 신뢰감에 적용해보자면, 학급의 공격

영역에 대해 의사소통할 때 학생들이 얼마나 주장과 근거에 바탕을 두고 대화하는지 그리고 교사가 권위를 통해 강요하지 않고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하는지 여부는 공적인 의사소통의 결과물로서 나온 규칙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신뢰가 이처럼 논리적이고 인지적인 과정으로만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정서적 요인의 영향력이 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볼 때, 의사소통의 합리성만으로는 교실 내 의사소통 방식이 규칙 신뢰감에 미치는 영향을 담아내지는 못할 것이다.

규칙 신뢰감은 의사소통의 개방성이라는 정서적 과정을 통해서도 형성된다. 의사소통 행위와 신뢰를 중심으로 수행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개방적 의사소통이 신뢰 증진에 절대적으로 요구됨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거나 제안하고 있다(송현정, 2010: 252). 또한 Flanagan et al(2010)은 개방적인 학급 풍토가 학생들의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특정한 의사소통 방식은 한 학급의 학급 풍토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은 학급 풍토와도 관련이 있다. 다만 의사소통은 학급 풍토보다 구체적인 개념이고 의사소통 방식을 활용하는 주체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규칙 신뢰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측정하기에 보다 적합하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관계 대상과의 감정적,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여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규칙 신뢰감에 적용해보자면, 학급의 공적 영역에 대해 의사소통할 때 학생들이 자신과 다른 의견도 경청하는지 그리고 교사가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수용하는지 여부는 규칙 운영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여 규칙 신뢰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률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규칙들은 공중(public)에 의해 결정된다. 비록 대의에 의해 법률이 제정될지라도 법과 다양한 규칙들은 필연적으로 일반 사람들의 욕구와 생각을 반영하게 된다(김주환, 2005: 76). 민주적인 학급에서도 규칙은 교사 및 학생의 욕구와 생각을 반영하게 되고 이를 위한 과정이 의사소통 행위이다. 합리적이고 개방적

인 의사소통의 결과 여론이 형성되면 그것이 공식적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되거나 결정된 사안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Habermas, 1990; 1992). 또한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학급 의사소통 방식은 학급의 민주적 의사결정 풍토와 교사 및 같은 반 학생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여 학급규칙 신뢰감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 4. 선행 연구 검토

### 1) 의사소통 관련 선행연구

학교 교육에서의 의사소통 연구는 주로 교사의 의사소통에 주목하여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강재원(1994)의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을 학급 담임 교사가 학급경영을 위해 학생들과 나누는 언어적인 의사소통에 국한시켜 교사의 의사소통 유형을 제시하였다. 그는 교사의 경청태도와 의사소통 행위를 기준으로 수용명령형, 비수용명령형, 수용촉구형, 비수용촉구형 의사소통으로 분류하였으며, 학급 담임교사의 의사소통유형과 학생의 집단응집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의사소통유형이 수용촉구적일 때 가장 높은 집단응집성이 보이고 비수용명령적일 때 낮은 집단응집성을 보인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교사와 학생 간 의사소통에 주목한 또 다른 연구로 기혜경(2011)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사와 학생 간 의사소통 양상을 Habermas의 보편 화용론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진학 지도와 생활 지도 상황에서 대화를 분석한 결과 네 가지 타당성 요구를 만족시키기 않아 의사소통의 합리성이 제대로 달성되지 않았으며 상호 이해 지향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학교 교육에서의 의사소통 연구는 교사의 의사소통 방식에 매우 국한되어 있었다. 또한 선행 연구들은 의사소통 참여자의 상호소통에 주목하기보다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 또는 지도방식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의사소통의 본래적 의미를 생각해보면 의

사소통은 대화의 참여자 쌍방이 화자가 되는 동시에 청자가 되는 상호작용이다. 따라서 학급 의사소통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의사소통의 본질에 주목한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사소통은 속의 민주주의에서 속의 양식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연구되어져 왔다. 의사소통을 속의적 대화의 관점에서 정의하고 논의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가상공간의 공적 속의 경험과 시민적 자질의 관계를 연구한 한혜경(2005)은 의견교환의 합리성과 개방성의 정도로 속의 경험을 분석하였으며, 시민적 자질의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합리적이고 개방적으로 의견을 교환함을 확인하였다. 노성중·민영(2009)은 정치적 대화의 속의수준에 따라 경험한 정치적 이견의 정도와 정치참여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그는 대화의 질적 측면을 분석하기 위해 주장의 근거 제시와 상호 간 경청을 두 축으로 하는 대화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범준·조성겸(2015)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4개의 하위 차원으로 이루어진 소통의 질 척도를 제시하였다. 소통의 질을 구성하는 하위 차원으로는 일반적 상호성, 합리성, 반대의견 듣기, 소통 예의 등이 제시되었다.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속의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의사소통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합리성과 개방성을 속의적 대화의 조건으로 보았다. 즉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학급에서 경험해야 할 민주적 의사소통 방식의 조건으로 의사소통의 합리성과 개방성을 설정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학급에서의 의사소통은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생 간의 대화도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의사소통의 주체를 확장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의사소통 방식과 학생의 의사소통 방식을 모두 종합한 것을 학급의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정의하였다.

## 2) 규칙 신뢰감 관련 선행연구



규칙 신뢰감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학생들의 규칙에 대한 태도에 대한 논의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져 왔다. 규칙에 대한 태도를 논의한 연구에서는 규칙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규칙 운영 과정에서의 학생 참여와 규칙 시행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주요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전진현(2013)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교칙 제·개정 절차에 참여한 결과 교칙태도의 인지·정서·행동적 영역이 모두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배화순(2017)의 연구에서도 학교규칙의 제정 과정의 참여가 규칙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교규칙의 시행 과정에서 의견 표명의 기회가 있을 때와 규칙 적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때 규칙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함을 확인하였다.

강은영(2016)의 연구는 규칙에 대한 태도 중 규칙 신뢰감에 특히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강은영(2016)은 학생의 규범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생활지도 과정에 학생이 참여할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사의 민주적인 생활지도 태도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학교규칙 운영 과정에 학생이 참여할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고등학교를 선정하여 청소년 552명의 설문 응답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사의 개방적이고 공정한 생활지도 태도는 청소년의 학교규칙 신뢰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개방적인 태도는 특히 학교규칙 형성절차 신뢰감과 학교규칙 내용 신뢰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친 반면, 교사의 공정한 태도는 학교규칙 시행 신뢰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규칙 신뢰감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학생의 참여나 교사의 태도가 아닌 학급 의사소통 방식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앞서 서술한 선행 연구와 차이가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이 제도적으로 정립되어 가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교규칙 운영에 주목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일상적으로 활용되는 초등학교 학급규칙에 주목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규칙이 형성되고 시행되는 하나의 단면에 주목하기보다 학급규칙의 운영을 함께 공유하는 학급 구성원 사이에서의 소통 방식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신뢰의 형성을 위해 소통이 중요함을 강조한 연구는 이론적으로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실증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학급의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규칙 신뢰감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Flanagan et al(2010)의 연구에서는 개방적인 학급 풍토가 사회적 신뢰감을 함양함을 확인하였다. 학급 구성원의 의사소통 방식은 하나의 대화 장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의 문화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학급문화와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개방적인 학급 풍토가 사회적 신뢰감을 함양하였다는 결과는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규칙에 대한 신뢰감 함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다. 또한 문호영·문성호(2007)의 연구에서는 교사가 명료성과 일관성이 높은 대화를 할수록 청소년들이 학교규범을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가 탐색하고자 하는 의사소통 방식과 학생의 규칙 신뢰감의 관계 규명에 유의미한 논거를 제시해준다.

### Ⅲ. 연구 설계

#### 1. 연구 가설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급 의사소통 방식이 학생의 규칙 신뢰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주 연구 문제는 ‘학급 의사소통 방식은 규칙 신뢰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다. 이론적 검토를 통해 주 연구 문제를 밝히기 위한 전제로 학급 의사소통 방식을 의사소통 합리성과 의사소통 개방성으로 세분화하였다. 학생의 규칙 신뢰감은 규칙의 공정성과 규칙의 유용성으로 구분하였다. 이 구분에 따라 학생의 규칙 신뢰감을 측정하고 학급 의사소통 방식과의 관계를 연구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주가설과 하위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주가설 : 학생이 지각한 학급 의사소통 방식은 학생의 규칙 신뢰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주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하위가설은 다음과 같다.

**하위가설 1 : 학생이 지각한 의사소통 방식이 민주적일수록 규칙 공정성이 높을 것이다.**

1-1 : 의사소통 방식이 합리적일수록 학급규칙 공정성이 높을 것이다.

1-2 : 의사소통 방식이 개방적일수록 학급규칙 공정성이 높을 것이다.

학급규칙이 공정하다는 믿음은 그 대상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갖는다. 규칙을 형성할 때의 공정성은 참여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졌는지를 의미하며 이는 절차적 공정성에 해당한다. 반면 규칙의 내용과 시행의 공정성은 의사소통의 결과로 정해진 규칙의 내용이 편파적이지 않고 규칙의 시행이 공정한가를 의미하며 이는 분배적 공정성에 해당된다. 합리

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규칙 공정성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학급에서 형성된 의사소통의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것은 의사소통이 논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경우 규칙의 내용과 운영이 인지적으로 납득 가능한 상황과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의 규칙 공정성 신뢰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의사소통의 방식이 개방적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있고 공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다양한 의견이 수용된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 편향되지 않은 규칙의 내용이 형성되고 규칙 운영 과정에서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져 학생의 규칙 공정성 신뢰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위가설 2 : 학생이 지각한 의사소통 방식이 민주적일수록 규칙 유용성이 높을 것이다.**

2-1 : 의사소통 방식이 합리적일수록 학급규칙 유용성이 높을 것이다.

2-2 : 의사소통 방식이 개방적일수록 학급규칙 유용성이 높을 것이다.

학급규칙이 유용하다는 믿음은 학급규칙이 학급의 질서 유지, 안전, 공동체 생활 그리고 문제 예방 및 해결에 유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믿음은 규칙이 형성되고 시행되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쓸모 있는가에 대한 믿음으로, 사후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사후적 의미를 갖는다고 해서 학급규칙의 유용성이 그 결과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 결과가 도출되기까지의 과정과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경험한 의사소통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의 경험은 학급규칙의 내용과 운영에 정당성을 부여하여 규칙 유용성 신뢰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급 의사소통 방식이 학생의 규칙 신뢰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 대상으로 초등학생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는 중·고등학교와는 달리 학급 담임이 학생들과 같은 교실에서 하루 종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와의 의사소통이 보다 더 활발하다. 또한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생활 규정이 학교에서 제도적으로 수립되어 하향식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대화와 토의를 통해 수립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더 적합하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이다. 그 이유는 첫째, Piaget의 인지 발달 이론에 따르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은 구체적 조작기에서 형식적 조작기로 차츰 벗어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 학생들은 규칙에 대한 신뢰를 판단할 때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 모두를 동원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갖추게 된다. 둘째, Nucci(2001, 2009)의 도덕적 영역과 사회 관습적 영역의 발달에 따르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은 기계적 평등의 수준을 넘어선 공평성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다. 또한 이 시기 학생들은 사회 관습적 규칙이 맥락에 따라 달라지고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반면 Tapp과 Levine에 따르면 초등학교 1~4학년 학생들은 법 복종의 단계에 해당된다. 이 시기 학생들은 법과 규칙의 사회적 성격에 대한 인지가 형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권위에 대한 맹목적 복종이 법 준수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의사소통 방식에 의해 규칙 신뢰감이 능동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서울, 경기 지역 초등학교 4개 학교에서 13개 학급을 선정하여 총 278명의 학생이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이자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본 설문은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하는 A학교 6학년 2개 학급과 5학년 1개 학급,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B학교 6학년 1개 학급과 5학년 1개 학급,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하는 C학교 6학년 4개 학급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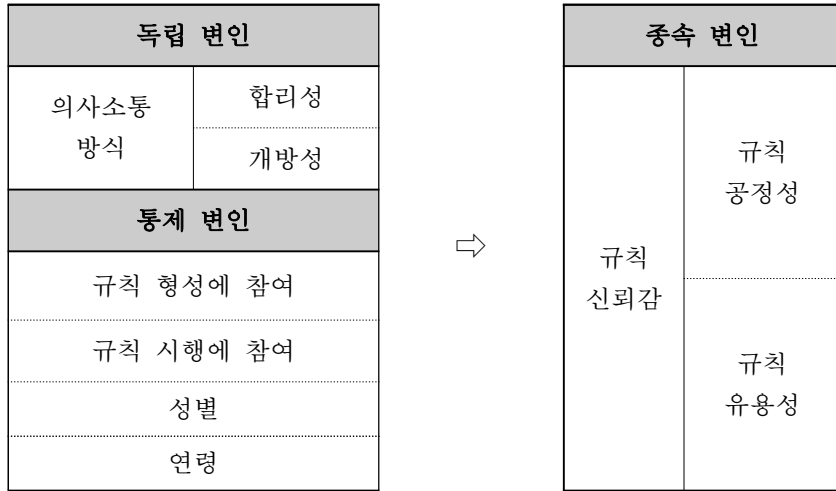
학년 2개 학급 그리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위치한 D학교 6학년 1개 학급과 5학년 1개 학급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설문지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케이스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측정된 응답자는 총 260명이다. 이 중 여학생은 130명(50%), 남학생은 130명(50%)이다. 연구 참여자의 학년별 구성은 초등학교 5학년 77명(29.6%), 초등학교 6학년 183명(70.4%)이다. 다음의 <표 5>는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표 5> 연구 대상의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130	50.0
	여자	130	50.0
	합계	260	100
연령	5학년	77	29.6
	6학년	183	70.4
	합계	260	100

### 3. 연구 변인

본 연구는 학급 의사소통 방식이 학생의 규칙 신뢰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학급 의사소통 방식을 독립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의사소통 방식 외에 통제 변인으로 학급규칙 형성 및 시행에 직접 참여한 경험, 성별, 연령을 선정하였다. 연구에 활용될 분석 모형을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 6]과 같다.



[그림 6] 분석 모형

### 1) 종속 변인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규칙 신뢰감은 법교육 중 규범교육의 핵심 목표이다. 규칙 신뢰감은 학생이 자신이 속해 있는 학급의 규칙의 내용과 운영이 얼마나 공정하고 학교생활에 유용한지에 대해 신뢰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규칙 신뢰감은 신뢰의 내용을 기준으로 규칙 공정성과 규칙 유용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규칙 공정성이란 학급의 규칙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며, 규칙 유용성은 학급규칙이 자신의 학교생활에 얼마나 쓸모 있을 것인가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 규칙 신뢰감의 측정을 위해 총 14문항의 질문을 담은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 2) 독립 변인

본 연구의 독립 변인은 학급 의사소통 방식이다. 학급 의사소통 방식은 학급의 공적 의사소통에서 학급 구성원이 합리적이고 개방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공적 의사소통이란 교사와 학생이 학급

구성원 다수에게 해당되는 주제로 다함께 의사소통하는 상황을 말한다. 의사소통의 합리성이란 의사소통이 타당한 이유와 근거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는 수준이다. 이는 화자(話者)와 청자 두 가지 입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즉, 합리적 의사소통은 화자로서 자신의 주장을 근거들과 함께 명쾌하게 제시하는 수준을 의미하고 청자로서 타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의사소통의 개방성은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수준이다. 화자로서 자신과 다른 의견에 대해 비난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청자로서는 상대방의 의견이 자신과 달라도 경청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급 의사소통 방식은 교사와 학생 간의 의사소통과 학생과 학생 간의 의사소통을 모두 포함한다. 이에 학생이 지각하는 교사의 의사소통 방식과 학생의 의사소통 방식을 구분하여 측정하고 분석한다. 이를 위해 총 24문항의 질문을 담은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 3) 통제 변인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의 관계를 보다 엄밀히 측정하기 위해 규칙 신뢰감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요소를 추출하여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통제 변인은 학급규칙 운영 과정에 직접 참여한 경험, 연령, 성별이다.

법신뢰감을 연구한 김자영(2008)의 연구에서는 학생의 직접적인 법경험이 법신뢰감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규칙에 대한 연구에서도 규칙을 형성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참여한 경험이 규칙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있다. 전진현(2013)은 교칙 제·개정 절차에 참여한 학생의 교칙신뢰감과 교칙 제정 절차 신뢰감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배화순(2017)의 연구에서도 학생이 규칙 제정 과정과 적용 과정에 참여한 경우 학교규칙에 대해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급규칙 운영 과정에 직접 참여한 경험 여부를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였



다. 학생들이 학급규칙을 형성하고 시행할 때 직접 참여한 경험 여부를 ‘있다’, ‘없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학급규칙 신뢰감에 관한 연령의 효과를 밝히고 있는 선행 연구는 없다. 하지만 본 연구는 규범에 대한 연구이므로 법 또는 학교규칙과 관련된 연구에서 연령 효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Kohlberg의 도덕 발달이론은 기본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법과 규칙에 대한 인식 및 태도도 함께 발달할 것이라는 점을 가정한다. 하지만 그의 이론과 다르게 박성혁(1995)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법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화순(2017)의 연구에서는 연령 간 학교규칙 공정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존의 연구를 살펴볼 때 연령이 학생의 학급규칙 신뢰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연령을 통제 변인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성별에 대한 논의는 연구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Smetana & Bitz(1996)의 연구에서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교사가 결정한 규칙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규칙 신뢰감을 연구한 강은영(2016)의 연구에서도 학교규칙 신뢰감 중 규칙 내용 신뢰감과 규칙 시행 신뢰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신뢰감을 보였다. 배화순(2017)의 학교규칙에 대한 태도 연구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규칙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도 존재한다. 박성혁(1995)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관습적 규칙에 대한 의식 연구에서는 성별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 규칙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성별 간 차이가 일관되지 않지만, 본 연구에서는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하여 성별을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 4.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학급 의사소통 방식이 규칙 신뢰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관련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학급 의사소통 방식과 규칙 신뢰감을 측정할 수 있는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종속 변인인 규칙 신뢰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이전까지 개발되어 온 규칙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를 본 연구 문제의 검증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재구성하였다. 강은영(2016)의 학교규칙 신뢰감 측정도구와 전진현(2013)의 교칙태도 측정도구를 참고 및 보완하여 규칙 공정성과 규칙 유용성을 하위요인으로 하는 규칙 신뢰감 측정도구를 구성하였다. 규칙 공정성에 대한 신뢰감 7문항, 규칙 유용성에 대한 신뢰감 7문항으로 규칙 신뢰감을 측정하는 문항은 총 14문항으로 구성된다.

규칙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 문항으로 학급규칙 형성 절차에 교사와 학생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되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지, 학급규칙 내용이 모든 학생들을 위한 것이고, 규칙의 시행이 모두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규칙의 유용성에 대한 믿음을 측정하기 위해 학급규칙 형성절차가 좋은 규칙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지, 학급규칙의 내용이 질서 유지, 공동체 생활, 안전, 문제 예방 및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학급규칙의 시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척도는 Likert형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설문지 구성과 신뢰도는 <표 6>과 같다.

<표 6> 규칙 신뢰감 설문 구성

분류	하위 요소	문항번호	본 연구의 Cronbach' s $\alpha$
규칙 신뢰감	규칙 공정성	3-1*,2,3,4*,6*,7	.82
	규칙 유용성	3-8,9,10,11,12,13,14*	.86

(\* 표시된 문항은 역코딩 문항)

독립 변인인 학급 의사소통 방식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먼저 교사의 의사소통 유형과 일반적인 의사소통의 질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의사소통 방식의 하위 요인을 의사소통 합리성과 의사소통 개방성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가상공간의 속의 경험을 조사한 한혜경(2005)과 시민의 소통의 질 측정 척도를 개발한 이범주·조성겸(2015)의 연구를 바탕으로 학급의 공적 의사소통 상황에 맞게 변환하여 학급 의사소통 방식 측정도구를 구성하였다. 의사소통 합리성 12문항, 의사소통 개방성 12문항으로 학급 의사소통 방식을 측정하는 문항은 총 24문항으로 구성된다.

의사소통 합리성을 측정하기 위해 주장을 이해가능하게 제시하는지,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려 하는지, 감정이나 충동에 따른 의사 표현을 하는지(역코딩), 상대 주장의 논거에 주의하는지, 서로의 의견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는 노력을 하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의사소통 개방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는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지, 상대의 의견을 이해하거나 수용하는지, 역지사지의 자세를 가졌는지, 반대의견에도 관심을 가지고 존중하는지 등에 관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척도는 Likert형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설문지 구성과 신뢰도는 <표 7>과 같다.

<표 7> 학급 의사소통 방식 설문 구성

분류	하위 요소	문항번호	본 연구의 Cronbach' s $\alpha$
의사소통 방식	합리성	1- 1,2,3*,4,5,6 2- 7,8,9*,10,11,12	.70
	개방성	1- 7,8,9,10,11,12 2- 1,2,3,4,5,6	.85

(\*표시된 문항은 역코딩 문항)

본 연구에서 활용된 학급 의사소통 방식과 규칙 신뢰감 측정도구는 선

행 연구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구성한 후 초등학교 교사의 자문을 통해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문항인지 검토하였다. 이후 서울의 초등학생 22명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 문항을 수정하여 최종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설문지의 문항 간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alpha( $\alpha$ ) 계수를 산출해 보았다. 종속 변인인 규칙 공정성 신뢰감 측정 문항의 Cronbach  $\alpha$  계수는 .82이고, 규칙 유용성 신뢰감 측정 문항의 Cronbach  $\alpha$  계수는 .86이다. 또한 독립 변인인 의사소통 합리성 측정 문항의 Cronbach  $\alpha$  계수는 .70이고, 의사소통 개방성 측정 문항의 Cronbach  $\alpha$  계수는 .8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 5.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주 연구 가설은 의사소통 방식이라는 독립 변인이 규칙 신뢰감이라는 종속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때 독립 변인인 의사소통 방식은 의사소통의 합리성과 의사소통의 개방성으로 나누어지며, 종속 변인은 규칙 공정성과 규칙 유용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의사소통 방식이 규칙 신뢰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의사소통 방식의 하위 요인 각각이 규칙 신뢰감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혼란요인을 통제하면서 독립 변인인 의사소통 방식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규칙 신뢰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학급규칙 형성 또는 시행 과정 참여 경험, 연령, 성별)을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였고, 의사소통 방식(의사소통의 합리성, 의사소통의 개방성)을 독립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모든 독립 변인을 포함하여 분석하는 방법

인 동시입력방식(Enter)을 사용하였다. 독립 변인과 통제 변인 가운데 범주형 변인인 학급규칙 형성 또는 시행 과정 참여 경험, 연령, 성별은 더미변인으로 처리하였다. 이러한 분석방법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회귀모형을 설정하였으며, 독립변인  $X_1$ 과  $X_2$ 의 계수인  $b_1$ 과  $b_2$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가설을 채택한다. 이와 같은 통계적 분석은 SPSS for Windows Ver. 23.0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Y = a + b_1X_1 + b_2X_2 + b_3X_3 + b_4X_4 + b_5X_5 + b_6X_6 + e_i$$

$Y_1$  : 규칙 신뢰감 ( $Y_1 = Y_{11} + Y_{12}$ )

( $Y_{11}$ =규칙 공정성,  $Y_{12}$ =규칙 유용성)

$a$  : 상수

$X_1$  : 의사소통 합리성

$X_2$  : 의사소통 개방성

$X_3$  : 학급규칙 형성 과정 참여 경험(없다=0, 있다=1)

$X_4$  : 학급규칙 시행 과정 참여 경험(없다=0, 있다=1)

$X_5$  : 연령(5학년=0, 6학년=1)

$X_6$  : 성별(남자=0, 여자=1)

## IV. 결과의 분석과 논의

본 장에서는 학급 의사소통 방식이 규칙 신뢰감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요인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함께 그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주 연구 가설은 학생이 지각한 학급 의사소통 방식이 학생의 규칙 신뢰감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이다. 이에 따른 하위 연구 가설로 규칙 신뢰감 중 규칙의 공정성과 규칙의 유용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 1. 학급 의사소통 방식과 규칙 신뢰감의 특성

초등학교에서 학급 의사소통 방식이 규칙 신뢰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에 앞서 초등학생이 지각한 학급 의사소통 방식과 규칙 신뢰감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적 특성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기술 통계를 통해 초등학생이 그들이 속한 학급의 의사소통 방식을 대체적으로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조사에 참여한 학생의 규칙 신뢰감은 어느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 1) 초등학생이 지각한 학급 의사소통 방식

조사에 참여한 260명의 초등학생이 지각한 학급 의사소통 방식의 기술 통계 값은 <표 8>과 같다. 연구 가설에서는 학급 의사소통 방식을 교사의 의사소통 방식과 학생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구분하지 않았으나, 의사소통 대상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값을 살펴 보았다.

〈표 8〉 학급 의사소통 방식의 특성

학급 의사소통 방식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합리성	교사	260	4.04	.55	2.50	5.00
	학생	260	3.43	.62	1.83	5.00
	전체	260	3.74	.48	2.50	5.00
개방성	교사	260	4.41	.63	2.00	5.00
	학생	260	3.60	.78	1.33	5.00
	전체	260	4.01	.56	1.92	5.00
전체		260	3.84	.48	2.25	4.95

먼저 학생들은 의사소통 방식의 개방성(M=4.01)을 합리성(M=3.74)보다 높게 지각하였으며, 의사소통의 대상을 교사와 학생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교사의 개방성(M=4.41)이 가장 높고, 학생의 합리성(M=3.43)이 가장 낮았다. 이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초등학생은 학급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학급의 의사소통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은 그보다 낮았다. 또한 그들은 교사의 의사소통 방식을 같은 반 학생들의 의사소통 방식보다 합리적이고 개방적이라고 지각하였으며, 학생의 의사소통 방식의 표준편차는 비교적 높게 나타나(합리성 .62, 개방성 .78) 개인 간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 2) 초등학생의 규칙 신뢰감

초등학생의 규칙 신뢰감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확인하기 위해 기술 통계 값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먼저 연구에 참여한 전체 학생의 규칙 신뢰감은 중간값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M=4.15)

표준편차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64) 개인 간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규칙의 공정성(M=4.30)이 규칙의 유용성(M=4.01)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조사에 참여한 초등학생은 학급규칙의 내용과 운영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학급규칙의 내용과 운영이 학교생활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규칙 신뢰감의 특성

규칙 신뢰감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규칙 공정성	260	4.30	.63	1.71	5.00
규칙 유용성	260	4.01	.74	2.00	5.00
전체	260	4.15	.64	1.86	5.00

## 2. 학급 의사소통 방식이 규칙 신뢰감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주 연구 가설은 ‘학생이 지각한 학급 의사소통 방식은 학생의 규칙 신뢰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다. 먼저 수집된 데이터가 회귀분석의 통계적 가정을 충족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다중공선성 문제를 진단하기 위하여 통제 변인을 포함한 독립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의 통제 변인을 포함한 독립 변인들 간 상관관계는 모두 절대값 .8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10〉 연구 독립 변인 간의 상관관계

	합리성	개방성	규칙형성 참여	규칙시행 참여	연령	성별
합리성	1	.710***	.183**	.205**	.139*	-.018
개방성		1	.206**	.249***	.101	-.003
규칙형성 참여			1	.491***	-.050	-.028
규칙시행 참여				1	.010	.060
연령					1	-.706
성별						1

(\*:p<.05, \*\*:p<.01, \*\*\*:p<.001)

### 1) 학급 의사소통 방식이 규칙 신뢰감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학급 의사소통 방식이 규칙 신뢰감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회귀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의사소통 합리성, 의사소통 개방성, 규칙형성에 참여, 규칙시행에 참여, 연령, 성별이 학생의 규칙 신뢰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규칙 신뢰감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공선성통계량	
	B	표준 오차	Beta			공차	VIF
(상수)	1.129	.268		4.209	.000***		
의사소통 합리성	.350	.100	.261	3.498	.001**	.449	2.226
의사소통 개방성	.425	.086	.372	4.960	.000***	.446	2.240
규칙형성 참여	-.044	.078	-.033	-5.655	.573	.743	1.346
규칙시행 참여	.126	.091	.081	1.384	.168	.727	1.375
연령	-.101	.074	-.073	-1.367	.173	.889	1.125
성별	.033	.064	.026	.517	.605	.984	1.016

R	R <sup>2</sup>	수정된 R <sup>2</sup>	추정값의 표준오차
.609	.370	.355	.512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회귀 모형	38.779	6	6.463	24.608	.000***
잔차	65.925	251	.263		
합계	104.705	257			

(\*:p<.05, \*\*:p<.01, \*\*\*:p<.001)

본 회귀 모형은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_{(df=6,251)}=24.608, p=.000$ ). 또한 각 변수들의 다중공선성 진단 통계량인 VIF값이 모두 10보다 작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회귀 모형에 포함된 독립 변인이 학생의 규칙 신뢰감을 설명한 정도는 37%로 나타났다. 검증 결과, 규칙 신뢰감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은 의사소통 합리성, 의사소통 개방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통제 변인인 학생들의 규칙 형성 참여 경험, 규칙 시행 참여 경험, 연령, 성별은 규칙 신뢰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검증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독립 변인인 의사소통 합리성은 유의수준 .01에서 규칙 신뢰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3.498, p=.001$ ). 회귀계수로 볼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의사소통 합리성이 1단위 높아질수록 규칙 신뢰감이 0.350점 높아진다. 또한, 의사소통 개방성은 유의수준 .001에서 규칙 신뢰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4.960, p=.000$ ).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의사소통 개방성이 1단위 높아질수록 규칙 신뢰감이 0.425점 높아진다. 따라서 학생이 지각한 학급 의사소통 방식이 학생의 규칙 신뢰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 연구가설은 채택된다.

통제 변인인 규칙 형성에 참여한 경험( $t=-.565, p=.743$ ), 규칙 시행에 직접 참여한 경험( $t=1.384, p=.168$ ), 연령( $t=-1.367, p=.173$ ), 성별( $t=.517, p=.605$ )은 규칙 신뢰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학급의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 방식은 학생의 규칙 신뢰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학급 의사소통 방식의 합리성( $\beta=.261$ )과 개방성( $\beta=.372$ ) 중 학생의 규칙 신뢰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방성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견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타당하게 교환되는가보다 자신의 의견이 얼마나 존중받고 수용되는가가 규칙 신뢰감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초등학생의 발달특성상 신뢰 형성에 있어서 이해

가능성과 논리성이라는 인지적 요인보다 경청과 공감, 존중이라는 정서적 요인이 주는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초등학생이 지각한 학급 의사소통 방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사소통 합리성에 대해 낮게 자평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초등학생에게 민주적 의사소통이라는 관념이 개방성의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지만 합리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통제변수로 고려했던 규칙 형성과 시행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학생의 규칙 신뢰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를 통해 볼 때, 규칙 운영 과정에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규칙 신뢰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2) 학급 의사소통 방식이 규칙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 하위 연구 가설은 ‘학생이 지각한 의사소통 방식이 민주적일수록 규칙 공정성이 높을 것이다.’ 이다. 아래의 <표 12>는 학급 의사소통 방식이 학생의 규칙 공정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회귀 분석의 결과이다.

〈표 12〉 규칙 공정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공선성통계량	
	B	표준 오차	Beta			공차	VIF
(상수)	1.761	.283		6.211	.000***		
의사소통 합리성	.218	.106	.165	2.060	.040*	.449	2.226
의사소통 개방성	.407	.091	.361	4.496	.000***	.446	2.240
규칙형성 참여	.014	.082	.011	.172	.864	.743	1.346
규칙시행 참여	.128	.096	.084	1.333	.184	.727	1.375
연령	-.052	.078	-.038	-.665	.506	.889	1.125
성별	.038	.068	.030	.555	.579	.984	1.016

R	R <sup>2</sup>	수정된 R <sup>2</sup>	추정값의 표준오차
.526	.277	.259	.542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회귀 모형	28.159	6	4.693	15.991	.000***
잔차	73.666	251	.293		
합계	101.825	257			

(\*:p<.05, \*\*:p<.01, \*\*\*:p<.001)

본 회귀 모형은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_{(df=6,251)}=15.991, p=.000$ ). 또한 각 변수들의 다중공선성 진단 통계량인 VIF값이 모두 10보다 작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회귀 모형에 포함된 독립 변인이 규칙 공정성을 설명한 정도는 27.7%로 나타났다. 검증 결과, 규칙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은 의사소통 합리성과 의사소통 개방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통제 변인인 학생들의 규칙 형성 참여 경험, 규칙 시행 참여 경험, 연령, 성별은 규칙 공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검증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독립 변인인 의사소통 합리성은 유의수준 .05에서 규칙 공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2.060, p=.040$ ). 회귀계수로 볼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의사소통 합리성이 1단위 높아질수록 규칙 공정성이 0.218점 높아진다. 따라서 ‘의사소통 방식이 합리적일수록 학급규칙 공정성이 높을 것이다.’ 는 가설 1-1은 채택된다.

또한 의사소통 개방성은 유의수준 .001에서 규칙 공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4.496, p=.000$ ). 회귀계수로 볼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의사소통 개방성이 1단위 높아질수록 규칙 공정성이 0.407점 높아진다. 따라서 ‘의사소통 방식이 개방적일수록 학급규칙 공정성이 높을 것이다.’ 는 가설 1-2은 채택된다.

통제 변인인 규칙 형성에 참여한 경험( $t=.172, p=.864$ ), 규칙 시행에 직접 참여한 경험( $t=1.333, p=.184$ ), 연령( $t=-.665, p=.506$ ), 성별( $t=.555, p=.579$ )은 규칙 공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학급의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 방식은 학생의 규칙이 공정하다는 믿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학급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의견을 교환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논리적인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도출한 규칙의 내용이 편파적이지 않다고 인

식할 것이며, 규칙의 시행 또한 학생이 이해할만한 상황에서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시행될 것이라 인식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학급규칙의 내용과 운영이 공정하다는 믿음으로 이어진다. 또한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학급에서는 학생들이 동등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가지며 자신의 의견이 교사와 동료 학생들에 의해 존중받는다고 인식한다. 이에 따라 규칙의 운영 과정에서도 부당한 일이 생겼을 때 학생들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것이며 이는 자신이 속해 있는 학급의 규칙이 절차적으로든 결과적으로든 공정하다는 믿음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 3) 학급 의사소통 방식이 규칙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

두 번째 하위 연구 가설은 ‘학생이 지각한 의사소통 방식이 민주적일수록 규칙 유용성이 높을 것이다.’ 이다. 아래의 <표 13>은 학급 의사소통 방식이 학생의 규칙 유용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회귀 분석의 결과이다.

〈표 13〉 규칙 유용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공선성통계량	
	B	표준 오차	Beta			공차	VIF
(상수)	.490	.312		1.568	.118		
의사소통 합리성	.477	.116	.307	4.097	.000***	.449	2.226
의사소통 개방성	.450	.100	.338	4.504	.000***	.446	2.240
규칙형성 참여	-.102	.090	-.066	-1.127	.261	.743	1.346
규칙시행 참여	.122	.106	.068	1.150	.251	.727	1.375
연령	-.149	.086	-.092	-1.726	.086	.889	1.125
성별	.026	.075	.018	.350	.726	.984	1.016

R	R <sup>2</sup>	수정된 R <sup>2</sup>	추정값의 표준오차
.607	.369	.354	.597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회귀 모형	52.218	6	8.703	24.441	.000***
잔차	89.377	251	.356		
합계	141.594	257			

(\*:p<.05, \*\*:p<.01, \*\*\*:p<.001)



본 회귀 모형은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_{(df=6,251)}=24.441, p=.000$ ). 또한 각 변수들의 다중공선성 진단 통계량인 VIF값이 모두 10보다 작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회귀 모형에 포함된 독립 변인이 규칙 유용성을 설명한 정도는 36.9%로 나타났다. 검증 결과, 규칙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은 의사소통 합리성과 의사소통 개방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통제 변인인 학생들의 규칙 형성 참여 경험, 규칙 시행 참여 경험, 연령, 성별은 규칙 유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검증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독립 변인인 의사소통 합리성은 유의수준 .001에서 규칙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4.097, p=.000$ ). 회귀계수로 볼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의사소통 합리성이 1단위 높아질수록 규칙 신뢰감이 0.477점 높아진다. 따라서 ‘의사소통 방식이 합리적일수록 학급규칙 유용성 신뢰감이 높을 것이다.’ 는 가설 2-1은 채택된다. 또한 의사소통 개방성은 유의수준 .001에서 규칙 신뢰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4.504, p=.000$ ). 회귀계수로 볼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의사소통 합리성이 1단위 높아질수록 규칙 신뢰감이 0.450점 높아진다. 따라서 ‘의사소통 방식이 합리적일수록 학급규칙 유용성 신뢰감이 높을 것이다.’ 는 가설 2-2은 채택된다.

통제 변인인 규칙 형성에 참여한 경험( $t=-1.127, p=.261$ ), 규칙 시행에 직접 참여한 경험( $t=1.150, p=.251$ ), 연령( $t=-1.726, p=.086$ ), 성별( $t=.350, p=.726$ )은 규칙 유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학급의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 방식은 학생의 규칙 유용성에 대한 믿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규칙의 내용과 운영이 유용하다고 믿는 것은 규칙이 형성되고 시행된 바가 자신의 학교생활에 쓸모가 있다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믿음은 학생들이 다함께 규칙을 형성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학급에서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

통이 이루어진 경우 학생들은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공적 논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을 것이며,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수렴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즉, 민주적인 의사소통의 경험은 소통의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학급규칙 운영에 정당성을 부여하여 학급규칙의 내용과 운영이 자신의 학교생활에 유용하다는 신뢰감으로 이어질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이 지각한 학급 의사소통 방식이 규칙 신뢰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민주적 의사소통의 경험이 학생의 규칙 신뢰감의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하나의 주가설과 두 개의 하위 가설을 설정하였다.

**[주가설] 학생이 지각한 학급 의사소통 방식은 학생의 규칙 신뢰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위가설 1] 학생이 지각한 의사소통 방식이 민주적일수록 규칙 공정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1-1] 의사소통 방식이 합리적일수록 학급규칙 공정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1-2] 의사소통 방식이 개방적일수록 학급규칙 공정성이 높을 것이다.

**[하위가설 2] 학생이 지각한 의사소통 방식이 민주적일수록 규칙 유용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2-1] 의사소통 방식이 합리적일수록 학급규칙 유용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2-2] 의사소통 방식이 개방적일수록 학급규칙 유용성이 높을 것이다.

위의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서울, 경기도 소재하는 4개 학교에서 총 13개 학급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설문지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케이스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측정된 총 260명의 응답 자료를 분

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연구 가설의 검증을 위해 의사소통 개방성과 합리성, 규칙 형성 참여 여부, 규칙 시행 참여 여부, 연령, 성별을 독립 변인으로, 규칙 신뢰감을 종속 변인으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이 학급의 의사소통 방식이 민주적이라고 지각할수록 학생의 규칙 신뢰감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선 이론적 논의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공적 의사소통에서 충분한 숙의의 과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합리성이라는 인지적 요인과 개방성이라는 정서적 요인에 의해 규칙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의사소통 방식 중 개방성이 합리성보다 규칙 신뢰감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은 초등학생에게 인지적 요인보다는 정서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학급의 의사소통 합리성은 학생의 규칙 공정성 및 규칙 유용성에 대한 믿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합리적인 의사소통이란 학생의 개별 특성이나 교사의 권위에 좌우되지 않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짐을 뜻한다.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문화가 정착될 경우 논리적 의사소통을 통해 형성된 규칙의 내용은 편파적이지 않을 것이고 규칙의 운영도 타당한 근거에 따라 학생들이 이해할 만한 상황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규칙의 내용과 운영이 공정하다는 학생들의 믿음으로 이어진다. 또한 학생들은 의사소통의 결과물이 인지적으로 타당하다고 납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의 내용과 운영이 자신의 학교생활에 쓸모 있다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

이는 Habermas가 주장한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효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주장과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공적 의사소통이 도구적·전략적 행위가 아닌 상호이해를 지향하는 의사소통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달성된 경우 대화 참여자들은 대화를 통해 합의한 사항을 인정하고 이행하게 된다. 즉, 생활세계에서 이루어진 의사소통적 행위가 학급규칙 운영이라는 체계에 정당한 권력을 부여하게 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학급의 의사소통 개방성은 학생의 규칙 공정성 및 규칙 유용성

에 대한 믿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개방적인 의사소통이란 학급 구성원이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며,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방적인 의사소통의 문화가 정착된 학급의 경우 공적 의사소통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가질 것이다. 이는 규칙의 내용과 운영이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믿음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규칙이 결과적으로 학급 운영에 쓸모가 있다는 믿음을 형성하게 된다. 학급규칙이 학급 운영에 쓸모 있다는 것은 학급규칙이 학급의 질서 유지, 안전, 공동체 생활 그리고 문제 예방 및 해결에 유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대화의 주체가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고 대화할 때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며 소통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방적인 소통 태도는 대화 주체들 간의 심리적 장벽을 허물어 다양한 의견이 오가게 할 뿐만 아니라 학급 내 상호 존중의 분위기를 형성한다. 대화 참여자들은 자신의 생각이 충분히 존중받았다고 느끼면 자신의 의견이 최종 결론으로 정해지지 않더라도 그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받아들여지게 된다. 본 연구는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대인 간 신뢰뿐만 아니라 학급규칙이라는 제도에 대한 신뢰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넷째, 독립 변인인 의사소통 방식 이외에 통제 변인인 규칙 형성 과정의 참여, 규칙 시행 과정의 참여, 연령, 성별은 규칙 신뢰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규칙 운영에 있어서 학생의 직접 참여를 강조한 선행 연구들과 상이한 결과이다. 이 결과는 생활맥락에서 다루어지는 초등학생의 학급규칙의 경우 선행 연구와 달리 규칙 운영의 제도적인 참여와 연령, 성별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본 연구도 학급규칙을 포함한 전반적인 학급 운영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규칙 운영 과정에서의 학생 참여가 무의미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학생들의 형식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주적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형성되는 실질적인 민주적 학습경

험도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본 연구가 가지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학급 의사소통 방식이 규칙 신뢰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규범교육의 목표인 규칙 신뢰감 함양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의사소통이 규칙 신뢰감 함양을 위한 학습 경험으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학생이 일상적으로 교사 및 또래 학생들과 경험하는 의사소통이 규칙 신뢰감 형성에 강력한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규칙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규칙 운영 방법과 같이 규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험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신뢰라는 개념이 다차원적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됨을 고려할 때 규칙 신뢰감은 생활 전반에 걸친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함양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규칙 신뢰감 연구에 대한 대안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동안 학교규칙에 대한 연구는 교사와 학생을 분리하여 교사는 규칙의 집행자로 학생은 규칙을 적용 받는 존재로 전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교를 민주주의 장의 축소판으로 보고, 교실을 교사와 학생이 함께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공론장으로 보았다. 이는 규칙 운영에 있어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공론장에 참여하고 학습을 함께 운영해가는 주체로서 동등하게 보았다는 점에서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의 다른 시각을 제공한다.

공론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Habermas는 시민들이 형성하는 공론장이 의회와 같이 의사결정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공식적 공론장은 아니지만,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견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설명한다(한혜경, 2005: 617). 따라서 그는 시민들이 생활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공론영역을 공식적인 체계에 의사소통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학교는 학생들이 이상적 담화 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공론장이

될 수 있다. 학급 내에서 학생들은 어떤 주제도 다룰 수 있으며, 반드시 합의에 이르러 성공을 지향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없다(김우미, 2009: 67). 또한 학생들은 권력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동등한 또래 집단이므로 민주적 의사소통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참여자가 된다. 따라서 학교 내에서 민주적인 공론영역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이는 사회에 이상적인 담론 문화를 형성하는 바탕이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학급 구성원 간 의사소통이 어떠한 형태로 조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학급 의사소통 방식의 하위 요소로 분석한 의사소통의 합리성과 개방성은 규칙 신뢰감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할 때 교사는 우선 생활영역에서 학급 회의, 토의, 토론 등의 형태로 학급 구성원 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사는 공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먼저, 의사소통 주체들 간에 개방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소통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개방성을 대화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자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개방성으로 의사소통이 성립되었다면 상호 간에 이해 가능한 의견을 제시하는 주장의 타당성 확보를 통해 의사소통의 합리성도 충족시킬 수 있게끔 해야 한다. 학급 내에서 이러한 민주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면 공적 합의의 결과가 민주적 공동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학습경험을 제시할 수 있다.

학급의 민주적 의사소통의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생활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교과 수업에서도 의사소통적 행위가 활용되어야 한다. 대다수의 교사들은 수업을 교육적 실천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교실 통제나 진도 나가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홍남기, 2009: 184). 이러한 전략적 행위는 도구적 합리성을 전제한다. 전략적 행위에 기초한 교실수업이 아닌 의사소통적 행위에 기초한 교실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논증적 의사소통 행위 외에도 공감적 대화나 설명에 의한 의사소통 행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수업 형태에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보다 동등하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이해나 합의

에 도달하게 된다(홍남기, 2009).

넷째, 본 연구는 규칙 신뢰감 함양을 목표로 하는 규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학교에서 접하는 규칙은 법규범과 달리 규칙의 형성과 시행의 과정을 학생이 모두 확인 가능하다는 점에서 규범교육에 큰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규칙 신뢰감은 중간값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M=4.15$ ). 규칙 신뢰감은 이때까지 규칙에 대한 태도 중 일부분으로 정서적 영역에 국한되어 다루어졌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규칙 신뢰감은 인지, 정서적 영역이 모두 포함된 다차원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규칙 신뢰감은 학생들이 사회적 규칙 속에서 본격적으로 생활하게 되는 초등학교에서 반드시 형성되어야 할 중요한 규범 교육의 목표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규범 교육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학급규칙이 공정하고 유용하다는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학급규칙에 대한 신뢰감은 규범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형성하여 중·고등학교의 학교규칙, 더 나아가 사회의 규칙인 법에 대한 신뢰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민주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학급 구성원 간의 진정한 소통이 달성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초등학생이 규칙 신뢰감을 통해 공적 신뢰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는 일은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시민 교육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규칙 신뢰감 함양에 주목하였으며 동시에 민주적인 학급 의사소통 방식이 규칙 신뢰감 함양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증명하였다.

## 2. 제언

본 연구에서는 규칙 신뢰감 함양을 위해 학생의 신뢰 형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학급 의사소통 방식에 주목해야 함을 주장하고 이



를 실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규칙 신뢰감과 학급 의사소통 방식에 관련된 후속 연구를 위한 이론적, 교육 정책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학급 내 일상적 민주주의의 경험에 주목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규칙 운영과정에서 교사를 권위적인 집행자가 아니라 민의를 대표하는 대표자의 역할로 보았다. 이 관점에서는 규칙을 처벌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학생이 주체가 되어 형성한 사회적 합의로 본다. 즉 초등학교에서 학급규칙은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 하는 것이 아니라 학급 구성원이 다함께 합의한 규칙을 함께 ‘적용’ 하는 것이다. 실제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은 규칙 형성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64.2%, 규칙 시행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71.6%로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중·고등학교와 달리 규칙 운영에 참여할 기회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규칙을 함께 형성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처럼 이제는 학교 현장의 민주적인 제도나 교사의 민주적인 태도보다 학생들이 어떻게 양질의 민주주의를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학급 구성원 간 상호작용에 주목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민주적인 학급 분위기와 학습 경험에 있어서 교사의 민주적인 학급 운영 방법이나 민주적인 태도도 중요하지만, 학생 간 상호작용이 형성하는 비중도 매우 크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과 교사가 학급을 운영하는 방법에만 주목하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의사소통 방식과 학생의 의사소통 방식을 함께 측정하여 그 효과를 각각 밝히지는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학급을 하나의 공론장으로서 연구 단위로 설정하고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방향의 상호작용을 복합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학급 내 상호작용이 주는 효과를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학생의 합리성을 함양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력 차원의 교육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 학생들 스스로 학생 의사소통의 개방성은 상당히

높게 평가한 반면, 학생 의사소통의 합리성은 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타당한 의견을 내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교과 차원에서 논리적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일상 속에서 민주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의 현장 특성에 맞는 생활규범교육을 위한 실천·교육 정책적 연구들이 필요하다. 중·고등학교의 규범교육은 제도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초등학교의 규범교육에 대한 이론적·교육적 논의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초등학교의 학급규칙이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학급 운영의 맥락 속에서 한 부분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논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규범교육은 국가의 정규 교육과정의 시작으로 학생이 처음으로 사회적 약속인 규칙을 학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초등학교에서 형성된 규칙에 대한 태도는 중·고등학교에서 더 나아가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의 생활규범교육은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의 현장 특성을 고려할 때, 규범교육에 대한 논의는 규칙을 운영하는 상황을 분리시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맥락 속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는 생활규범교육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요구된다.

## 참 고 문 헌

- 강은영(2016). 사회적 자본으로서 규범 신뢰감 형성에 영향을 주는 교사의 생활지도 태도.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재원(1994). 중학교 학급담임교사의 의사소통유형과 집단응집성 관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기혜경(2011). 교사-학생 간 의사소통의 합리성에 관한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영옥·박정운(2006). PR커뮤니케이션 비판이론의 방향성에 관한 논의. **홍보학연구**. 10(2).
- 김용학(2004). **사회 연결망 이론**, 개정판, 박영사.
- 김우미(2009). 시민성의 전제로서 의사소통 합리성. **시민교육연구**. 41(2). 47-71.
- 김원식(2004). Habermas의 행위 이론. **해석학연구**, 14, 235-269.
- 김자영(2008). 청소년의 법적 신뢰감 형성 요인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재현(1996). **Habermas 사상의 형성과 발전**. 김재현 외, 11, 19-62.
- 김주환(2005). 민주주의에 있어서 대화의 중요성: 공론장에서의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정치적 대화. **언론과 사회**. 13(1), 75-99.
- 노성중·민영(2009). ‘숙의’와 ‘참여’의 공존: 대화의 숙의수준에 따른 정치적 이견의 경험과 정치참여의 관계 탐색. **한국언론학보**. 53(3), 173-197.
- 류태건(2014). 한국·일본·미국·독일의 대인신뢰와 정부신뢰.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373-395.
- 문호영·문성호(2007). 교사의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4(2), 167-186.
- 박성혁(1995). 학생들의 질서의식 형성에 관한 연구, 관습적 규칙을 중심으로” . **시민교육연구**, 21(1), 155-178.
- 박성혁·박선운(2009). 법교육 관점에서 본 학생징계 시행 상의 문제점과

- 개선 방안. **법교육연구**, 4(2), 57-77.
- 배화순(2017). 규범의 행동 영역과 운영 방법이 학교규칙에 대한 학생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현정(2010). 조직 내 사회적 자본 개념의 재해석. **HRD연구**, 12(1), 237-264.
- 원숙연(2011). 신뢰의 개념적·경험적 다차원성: 신뢰연구에 갖는 함의. **한국정책학회보**, 1-(3), 63-85.
- 윤평중(2003). 공동체주의 윤리 비판-급진자유주의 관점에서. **철학**, 76, 233-261.
- 이동훈(2009). 숙의적 공론장으로서 블로그 공간의 의사소통적 관용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3(4), 27-49.
- 이범주·조성겸(2015). 소통의 질 측정 방법의 타당성 검토. **커뮤니케이션 이론**, 11(1), 144-185.
- 이상린(2005). Habermas의 의사소통행위이론에 근거한 학교경영과정에서의 의사소통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상형(2015). 가치와 규범, 그 대립과 종합. **사회와 철학**, 29, 273-302.
- 이숙정(2005). 교사신뢰척도 개발 및 교사신뢰와 학교효과 변인의 관계모형 검증.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표·이주영·권동택(2012). 교육적 소통을 통한 학습자 중심 수업의 본질 논의.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2(4), 643-661.
- 장진아(2016). 초등학교 과학탐구 활동에서 나타난 교실 규범의 유형과 형성 과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숙경(2009). ‘교육적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텍스트의 대화 분석을 토대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진현(2013).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모형이 교칙태도에 미치는 효과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상우(2013). 중등학교 헌법교육의 위상과 방향에 관한 고찰. **법과인권 교육 연구**, 6(2), 89-107.
- 정철희(2001). 위르겐 Habermas, 김호기 편. **현대 비판사회 이론의 흐름**,

- 서울: 도서출판 한울.
- 조영제(1997). 다윈주의 사회의 관용 교육: 자율성에 근거한 관용 교육에 대한 비판. **시민교육연구**, 25, 305-326.
- 차재권 · 류태건(2017). 사회적 네트워크의 신뢰에 대한 영향분석: 사회자본론의 관점에서. **21세기 정치학회보**, 27(2).
- 한아름(2009). 학생자치법정 운영을 통한 법교육의 효과 분석. **법과인권교육**, 2(2), 79-115.
- 한주경(1996). **Habermas의 의사소통적 합리성**. 이진우 엮음(1996). Habermas의 비판적 사회이론. 55-81. 서울: 문예출판사.
- 한혜경(2005). 인터넷 이용자의 시민적 자질들과 가상공간의 속의 경험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19(4). 604-643.
- 홍남기(2009). 의사소통 합리성 함양과 사회과 교실수업. **시민교육연구**, 41(3). 183-204.
- 홍영기(2001). 학교 문화의 형성과 작용과정. **교육인류학연구**, 4(2), 41-69.
- 황선영 · 곽한영(2012).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의 형성과정에서 사회과 교육의 역할. **중등교육연구**, 60(4), 1255-1274.
- Arendt, H.(1958). *The human condi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1967). Truth and politics. In P. Laslett & W. G. Runciman(Eds), *Philosophy, politics and society*. Oxford: Blackwell.
- Axelrod, Robert.(2006). *The Evolution of Cooperation*(revised edition). New York: Basic Books.
- 이경식 (역)(2009). **협력의 진화. 이기적 개인의 텃포켓 전략**. 시스테마.
- Banner, R.(1982). *Hannah Arendt's Judgement Theory*, 김선욱 (역)(2002). **칸트 정치철학 강의**. 서울 : 푸른숲, 161-267.
- Barber, B. R.(1983). *The Logic and Limits of Trust*. New Brunswick, NJ: Rutgers.
- \_\_\_\_\_ (1984). *Strong Democracy: participatory politics for a new*

- age. 박재주 (역)(1992). **강한 민주주의: 새 시대를 위한 참여적 정치**. 서울: 인간사랑.
- Bohm, D.(1996). *On dialogue*. London, UK: Routledge.
- Bohman, J.(2000). Public deliberation: Pluralism, complexity, and democracy. *Cambridge: MIT press*.
- \_\_\_\_\_ (2003). Deliberative toleration. *Political Theory*, 31(6), 757-779.
- Bollnow, O. F. (1971). Pädagogik in anthropologischer Sicht. *Tokyo: Tamagawa University Press*. 오인탁 · 정혜영 (역)(1999). **교육의 인간학**. 서울: 문음사.
- Boostrom, R.(1991). The nature and functions of classroom rules. *Curriculum Inquiry*, 21(2), pp. 193-216.
- Buber, M.(1955). **Between Man and Man**(Trans. Smith, R.G.). Boston: Bacon Press.
- Buckley, P. K., & Cooper, J. M.(1978). Classroom management: A rule establishment and enforcement model.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78(4), 225-263.
- Coleman, J. S.(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Fishkin, J. S.(1995). *The voice of the people: Public opinion and democracy*. New Haven, CN: Yale University Press.
- Flanagan, C., Stoppa, T., Syvertsen, A. K. & Stout, M.(2010). *Schools and social trust*, In Handbook of research on civic engagement in youth, 307-330.
- Fukuyama, Francis.(1995). *Trust*. New York: The Free Press. 구승희 (역)(1996). **트러스트 : 사회도덕과 번영의 창조**. 한국경제신문사.
- Gastil, J., & Dillard, J. P.(1999). Increasing political sophistication through public deliberation. *Political Communication*, 16(1), 3-23.
- Giddens, Anthony(1984). *The Constitution of Society: Outline of the*

- Theory of Structuration*, Calif: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odin, P., Davies, J., Heyman, B., Reynolds, L., Simpson, A., & Floyd, M. (2007). Opening communicative space: A Habermasian understanding of a user-led participatory research project. *The Journal of Forensic Psychiatry & Psychology*, 18(4), 452-469.
- Habermas, J. (1973). Wahrheitstheorien. In Wirklichkeit und Reflexion. *Walter Schulz zum 60*, Neske, 211-265.
- \_\_\_\_\_ (1981).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Bd I. Frankfurt: Suhrkamp Verlag. 서규환 외 (역)(1995). **소통행위이론**. 서울: 의암출판문화사.
- \_\_\_\_\_ (1990).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한승완 (역)(2001). **공론장의 구조변동**. 파주:나남.
- \_\_\_\_\_ (1992). Faktizität und Geltung. Opening communicative space: a Habermasian understanding of a user-led participatory research project. *The Journal of Forensic Psychiatry & Psychology*. 18(4). 한상진 · 박영도 (역)(2000). **사실성과 타당성**. 파주:나남.
- Hardin, R.(1998). *Trust in Government*. Braithwaite.V. and Levi, M.(ed.) Trust and Governance. Russell Sage.
- Hechter, M., & Opp, K. D.(2001). *What have we learned about the emergence of social norms?*. In M. Hechter & K. D. Opp (Eds.), *Social Norms*. NY: Russell Sage Foundation, 394-415.
- Hills, P.J.(1987). *Teaching, Learning, and Communication*. 장상호 (역)(1986). **교수, 학습 그리고 의사소통**. 서울: 교육과학사.
- Horne, C.(2011).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the emergence of norms. In M. Hechter & K. D. Opp (Eds.), *Social Norms*. NY: Russell Sage Foundation, 3-34.
- Jackson, P. W., Boostrom, R., & Hansen, D. T.(1993). *The Moral Life of Schools*. SF: Jossey-Bass.
- Kim, J., Wyatt, R. O., & Katz, E. (1999). News, talk, opinion,

- participation: The part played by conversation in deliberative democracy. *Political Communication*, 16(4), 361-385.
- Laupa, M., & Turiel, E.(1986). Children' s conceptions of adult and peer authority. *Child Development*, 57(2), 405-412.
- Lewis, J. D., & Weigert, A. (1985). Trust as a social reality. *Social forces*, 63(4), 967-985.
- McGinnis, J. C., Frederick, B. P., & Edwards, R.(1995). Enhancing classroom management through proactive rules and procedures. *Psychology in the Schools*, 32(3), 220-224.
- Mill, J. S.(1978). On liberty, ed. Elizabeth Rapaport. *Indianapolis, IN: Hackett..*
- Montaigne, M.(1958). The complete works of Montaigne: *Essays, travel journal, letters*. Stanford University Press.
- Misztal, B. A.(1996). *Trust in Modern Societies*, Cambridge: Polity Press.
- Nucci, L. P.(2001). *Education in the Moral Domain*. NY: Cambridge.
- \_\_\_\_\_ (2009). *Nice is not Enough; Facilitating Moral Development*. Merrill, Prentice Hall.
- Oakeshott, M. (2003). *Sobre a história & outros ensaios*. Liberty Fund.  
최원형(역). **교육: 그 임무와 좌절, 현대교육목적론**. 서울: 원미사.
- Putnam, R. D.(1995). Bowling Alone: America' 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 65-78.
- Rousseau, D. M. Sitkin, S. B., Burt, R. S.,&Camerer, C.(1998). Not so different after all: a cross-discipline view of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 393-404.
- Rutherford, Paul(2000). *Endless propaganda: The advertising of public goods*.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Scott, John.(2000). *Social Network analysis*. A Handbook London: Sage.  
김효동 · 김광재 (역)(2012). **소셜 네트워크 분석**. 커뮤니케이션북스.
- Smetana, J. G., & Bitz, B. (1996). Adolescents' conceptions of teachers'



authority and their relations to rule violations in school. *Child Development*, 67(3), 1153-1172.

Sztompka, P.(1999). *Trust: A Sociological Theory*, Cambridge.

Young, I. M.(1996). Communication and the Other: Beyond the Deliberative Democracy. *Contesting the boundaries of the political*, 31, 120-135.

Zand, D.(1972). Trust and Managerial Problem Solving. *ASQ*, 17, 229-239.

## 부록

### 학생대상 설문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권한님이라고 합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질문지는 학생 여러분이 학교에서 경험한 의사소통과 규칙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본 질문지는 개개인에 관한 정보를 모으는 것이 아니며, 전체 학생들의 생각만을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모든 응답 내용은 철저하게 익명성과 그 비밀이 보장되며, 순수한 연구 목적 이외에는 다른 어떤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연구 종료 후 모두 폐기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간제한은 없으므로 천천히 작성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 일반사회전공 권한님 드림

※ 다음 각 질문에 대해 우리 반이 학급의 일을 함께 결정하거나 토의할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답해 주세요. 여기에서 학급의 일이란 학급규칙, 학급의 문제, 학급의 행사 등과 같이 학급 학생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주제를 뜻합니다.

1. 우리 반이 학급의 일을 함께 결정하거나 토의할 때, 올해(2019년) 학급 담임 선생님과 대화한 경험을 떠올려 봅시다. 자신이 느끼는 대로 응답지에 ○표 해주세요.

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선생님은 선생님의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한다.					
2	우리 선생님은 의견을 제시할 때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려 노력한다.					
3	우리 선생님은 충동이나 감정에 의해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					
4	우리 선생님은 학생의 의견과 근거를 주의 깊게 살펴본다.					
5	우리 선생님은 선생님의 의견과 다른 의견의 장단점을 비교해본다.					
6	우리 선생님은 선생님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다.					
7	우리 선생님은 학생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편이다.					
8	우리 선생님은 학생의 의견을 이해하려 노력한다.					
9	우리 선생님은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편이다.					
10	우리 선생님은 학생의 의견을 받아들여 선생님의 생각을 바꾸기도 한다.					
11	우리 선생님은 학생의 의견이 선생님과 달라도 비난하지 않는다.					
12	우리 선생님은 학생의 다양한 의견을 접하려고 노력한다.					

2. 우리 반이 학습의 일을 함께 결정하거나 토의할 때, 올해(2019년) 같은 반 친구들과 대화한 경험을 떠올려 봅시다. 자신이 느끼는 대로 응답지에 ○표 해주세요.

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반 아이들은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편이다.					
2	우리 반 아이들은 상대방의 의견을 이해하려 노력한다.					
3	우리 반 아이들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편이다.					
4	우리 반 아이들은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여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도 한다.					
5	우리 반 아이들은 상대방의 의견이 자신과 달라도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다.					
6	우리 반 아이들은 다양한 의견을 접하려고 노력한다.					
7	우리 반 아이들은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한다.					
8	우리 반 아이들은 의견을 제시할 때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려 노력한다.					
9	우리 반 아이들은 충동이나 감정에 의해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					
10	우리 반 아이들은 상대방의 의견과 근거를 주의 깊게 살펴본다.					
11	우리 반 아이들은 자신의 의견과 다른 의견의 장단점을 비교해본다.					
12	우리 반 아이들은 자신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다.					

3. 다음은 자신이 속해 있는 학급의 학급규칙(2019년)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대로 응답지에 ○표 해주세요.

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학급규칙을 만드는 방법은 선생님만을 위한 것이다.					
2	우리 학급규칙은 선생님과 학생들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되어 만들어진다.					
3	우리 학급규칙을 만드는 방법은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운영된다.					
4	우리 학급규칙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다.					
5	우리 학급규칙은 모든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6	우리 학급규칙을 지키며 생활하면 손해를 본다.					
7	우리 학급규칙은 공부를 잘하든 그렇지 않든, 학급 대표이든 아니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된다.					
8	우리 학급규칙을 만드는 방법은 학교생활에 필요한 규칙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9	우리 학급규칙은 학급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된다.					
10	우리 학급규칙은 각자 다른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된다.					
11	우리 학급규칙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준다.					
12	우리 학급규칙은 학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해 준다.					
13	우리 학급규칙은 학급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14	우리 학급규칙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들이 적절한 제지를 받지 않는다.					

4. 학급규칙을 만드는 데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나요?

① 없다

② 있다

5. 학급규칙을 적용하는 데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나요?

① 없다

② 있다

※ 다음은 설문 결과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사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세요.

6. 나의 학년은?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6학년

7. 나의 성별은?	남자	여자

Abstract

The Effects of Class  
Communication Methods  
on Students' Rule Trust  
in Elementary Schools

HAN-NIM, KWON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ajor Advisor : Sung-Hyuk, Park. Ph. D.

For a law and a system to come into force effectively in a democratic society, it requires the citizens' belief and supports. However, modern Korean society has very little public trust in laws and systems, and this trend of distrust can also be found in public schools. The typical examples of such distrust are: the futility of school institutions and public education, doubts about teachers' professionalism, and the breakdown of trust among students who cannot trust each other.

For students who spend most of the day in school, school rules, which are the official norms of the school, are thought to be their

laws and systems. Just as trust in a system must be backed up in order for democracy to be sustained, students' trust in school rules must precede in order for the rules to be effective and to function as means of maintaining community in harmony. Trust in school rules will not only lead to a voluntary rule-abiding behavior of students, but also contribute to the maintenance of the school community by promoting students' cooperative attitudes.

This trust does not form in a short period of time, but rather in the process of interacting with other members and forming relationships with them. In particular, official rules of living that apply to elementary school students is a class rule. In order for class rules to be established and enforced by consensus among the class members, the class members experience a constant process of communication. Students may or may not trust the class rules that result from the communication, depending on how they had communicated.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role of communication in forming trust. First, the cognitive aspect and the emotional aspect of communication was distinguished in order to clarify the communication methods that form the rule trust. As a result of reviewing previous studies and related theories, we found that communication rationality and communication openness, in cognitive and emotional aspect of communication respectively, are necessary in forming trus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democratic communication methods on the students' rule trust. A concrete hypothesis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is as follows.

[The main hypothesis] The class communication methods perceived by students will affect the students' rule trust.

[Hypothesis 1] If students perceive the communication methods



democratic, they will have a higher trust toward the fairness of rule.

[Hypothesis 1-1] If students perceive the communication methods rational, they will have a higher trust toward the fairness of rule.

[Hypothesis 1-2] If students perceive the communication methods open, they will have a higher trust toward the fairness of rule.

[Hypothesis 2] If students perceive the communication methods democratic, they will have a higher trust toward the usefulness of rule.

[Hypothesis 2-1] If students perceive the communication methods rational, they will have a higher trust toward the fairness of rule.

[Hypothesis 2-2] If students perceive the communication methods open, they will have a higher trust toward the fairness of rule.

In order to verify these hypotheses,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n 13 classes from 4 schools in Seoul and Gyeonggi-do. Cases that responded unfairly to the questionnaires were excluded, leaving a total of 260 valid responses for analysis. With these collected data, a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 was calculated to predict students' rule trust based on perceived communication openness and rationality, participation in rule formation, participation in rule enforcement, age, and gende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main hypothesis of this study is adopted that the class communication methods perceived by the students affects the students' rule trust. In addition, both the rationality and openness of communication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trust toward fairness and usefulness of the rule and adopt all the sub-hypotheses.

Through these results, we can derive following educational significances and implications. First, the fact that the class communication methods affect the rule trust suggests that it is possible to raise students' trust in rule through democratic communication, which is the goal of the norm education. Communication that students experience with their teachers and peers on a daily basis serves as a potent and powerful latent curriculum for building rule trust. Considering that the concept of trust is formed by multidimensional and persistent interactions, rule trust can be cultivated more effectively through everyday life-wide experiences.

Second, this study attempted an alternative approach to the study of rule trust. Previous research on school rules has considered teacher and students separately and presumed that teacher is a rule executor and students are subject to the rules. However, in this study, we saw the classroom as a public sphere where a teacher and students make rules together. This provides a different view of the interactions between a teacher and the students in that we saw the role of students in operating rule as equal to that of teacher.

Third, this study provides information about the ideal form of class communication. In this study, the rationality and openness of communication which are sub-factors of class communication methods were found to have influence on forming students' rule trust. These results reveal effective communication methods in class that promote students' trust in rules.

Fourth, this study emphasizes the necessity of normative education aimed at raising trust in rule. The rule trust of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participating in this study was lower than the median( $M=4.15$ ). School normative education should be able to promote rule trust, not just rule observance. This will be possible by creating a class

atmosphere where democratic communication can take place.

Rule trust formed through democratic communication promotes mutual cooperation within the class community and helps voluntarily comply with the rules. Those experiences from school will encourage students to become democratic citizens who respect social norms and build social trust based on them.

**Keywords : Civic Education, Law-Related Education,  
Class Rules, Communication, Rule Trust, Trust**

***Student Number : 2017-20613***